

주님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

리차드 범블란트

주님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

리차드 범블란트

Tortured for Christ

Korean Edition

Copyright 2015 Voice Media

info@VM1.global

Web home: www.VM1.global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 electronic, or mechanical method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in critical reviews and certain other noncommercial uses permitted by copyright law. For permission requests, email the publisher, addressed “Attention: Permission Coordinator,” at the address above.

This publication **may not be sold, and is for free distribution** only.

차 례

1. 무신론자가 그리스도를 찾음7
2. 더 큰 사랑이 없나니...31
3. 서방나라에서 사역하기 위한 몸값과 석방48
4.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산주의를 패배시킴53
5. 정복할 수 없는, 널리 퍼지는 지하교회87
6. 어떻게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패배시키는가?110
7. 지하교회의 호소136

저자 서문

나는 왜 이 책을 쓰는가?

나는 철의 장막 뒤에 있는 지하교회의 소식을 자유 세계 그리스도인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몇년동안 인도하여 왔던 지하교회는 이 절박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기 위하여 나를 자유세계에 내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이제 읽어서 아시겠지만 기적적으로 나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자유세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저는 공산치하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지하교회에 관한 소식을 믿음으로 전하려 합니다.

그럼 먼저 나의 간증으로 시작하여 지하교회의 일들을 적으려 합니다.

제 1 장

무신론자가 그리스도를 찾음

나는 종교 신앙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어려서 종교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4살 때 나는 이미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쓰라린 어린시절이 가져다준 결과였습니다. 나는 한살이 되어 고아가 되었고 1차 세계대전 기간에 빈곤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14살 때 벌써 오늘날의 공산주의자들처럼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신론에 관한 책들을 읽었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교적 개념들을 증오했고, 또 그 개념들은 사람들의 의식에 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후에 안 일이지만 하나님은 무지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품성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가 무신론자였으나 말할 수 없는 힘이 나를 교회(레배당)로 이끌었습니다. 교회를 지날 때마다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내가 복종해야만 하는 주인같은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벌써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어린시절과 청년시절은 기쁨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딘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을 갈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인하여 슬펐습니다. 언젠가 나는 령적 갈등으로 성당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반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성모 마리아여...” 나는 몇번이고 그들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의 조각 상을 바라보았으나 나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나에게는 당신을 믿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번뇌하고 있을 때 로무니아 한 산간마을의 늙은 목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종은 주님을 여러 해동안 섬겨왔습니다. 주님, 이 종이 죽기 전에 유대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은혜 베푸소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가난하고 늙었고 병들어 있으므로 나가서 유대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마을에 유대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유대인을 저희 마을로 불러주소서. 그러면 이 종이 힘을 다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마을로 갔으나 내가 거기서 할 일은 없었습니다. 로무니아에는 만이천여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 그 마을로 갔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목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왔다고 보고 성경을 나에게 주며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문학적 흥미로 성경을 여러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준 성경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들 내외는 나와 안해의 개종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다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속된 일생과 예수님의 생애, 나의 부도덕과 미움을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 나는 더이상 읽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내 뒤를 이어 안해도 개종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령혼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들이 또 다른 령혼들을 인도하여 로무니아의 새로운 루터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그후 나치스 시대가 시작되어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치즘들은 로무니아에서 독재 정책을 실시하여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나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교회를 이미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안해는 여러번 나치스들에게 체포되어 매를 맞았습니다. 나치스의 테러행위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에 비하면 비할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

들 미하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비유대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나치스 시대가 어려웠던 당시에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은 견딜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것과 앞으로의 지하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쏘련 사람들에게서의 전도

무신론자로서 회개한 후 나는 첫날부터 쏘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무신론주의의 지배 하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나의 이런 욕망은 나치스 시대에 많은 쏘련 포로들이 로무니아에 끌려오므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쏘련 포로와의 첫 만남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기사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물으려 했습니다. 만약 그가 안민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믿고 안민는 것은 개개인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깨닫지 못하였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는 그런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만약 그런 명령을 받으면 믿을거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내 두 볼을 적시며 흘러 내렸습니다.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앞에 서있는 이 사람은 마음이 죽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개

성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에 의해 완전히 세뇌된 공구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것을 더이상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몇년간의 공산주의 통치가 빚어낸 전형적인 소련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인간에게 행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나는 일생을 이들의 인격을 찾아주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나는 소련에 가지 않고도 소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944년 8월 23일부터 100만 소련군인들이 로무니아에 들어왔고 얼마 후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무서운 고통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로무니아에는 1,900만의 인구가 있었고 공산당원은 만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련 외무상(비쉴스끼)은 미하일 왕의 사무실에 뛰어들어 책상을 두드리며 공산당원들을 정부기관에 임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군인들과 경찰들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 뿐아니라 나라의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동구라파 나라들의 비극은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마음 속으로 져야하는 책임입니다.

미국은 당시 무심코 소련을 도와 우리를 살인자와 테러정권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포로된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속죄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거짓 사랑의 말은 다 같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한 후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쓰는 말은 다같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더러 양피를 뒤집어 쓴 이리와 진짜 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은 목사들과 신부들은 진가를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국회청사에서 기독교 단체들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에는 4천명의 목사들과 신부들이 참가하여 스탈린을 회의의 명예주석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동시에 세계 무신운동협회의 주석이며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학살한 흉수였습니다.

회의에서 신부들과 목사들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원칙상 같으므로 공존할 수 있다고 계속하여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산주의를 칭송하며 새정부에 충성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와 안해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해는 나에게 이르기를 “리차드, 일어나 주님 얼굴에 끼친 이 수치를 씻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만약 내가 입을 열면 당신은 남편을 잃을 것ियो”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겁쟁이 남편을 원치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일어나 담대히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살해한 자들을 칭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해야 하며 마땅히 주님께 충성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방송을 통하여 실황중계 되고 있어 온 나라가 공

산당 회의의 연단에서 발표되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후 이로 인해 비록 값을 치렀지만 보람있었습니다.

동방정교와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서로 공산당에게 아첨하기에 바빴습니다. 한 동방정교의 주교는 자기의 예복에 망치와 낫(공산당 마크)을 그려넣고 동료들에게 자기를 “주교동지”라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레시타 시에서 진행된 침례교회 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붉은 기를 걸었고 회의는 참가자들이 일어나 쓰런 국가(國歌)를 합창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침례교회 주석은 말하기를 스탈린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탈린을 위대한 성경학자라고 높이기로 했습니다.

페뜨라스꾸 목사와 로씨아뉴 목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로무니아 루터교의 부주교 라프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세가지 계시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그중 첫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두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번째는 스탈린을 통하여 주셨는데 이 세번째 계시는 앞의 두 계시를 대신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진정한 침례교는 이 거짓된 것을 승인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핍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선발된”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하여 침례교는 선택할 여지도 없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공산당의 종들은 자기들과 맞서는 형제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씨아 10월 혁명이 일어난 후 로씨아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지하교회를 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하교회란 믿음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공산당은 이런 지하교회는 금지하고 공식적인 교회 즉 국영교회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나도 지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시 아주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하교회의 사업을 하기에 좋은 방패가 되었습니다. 나는 노르웨이 루터교 선교회 목사인 동시에 로무니아 세계교회 위원회 대표였습니다(우리는 이 조직이 공산국가들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 그들은 구제사업만 추진하였습니다). 이 두 직함은 나의 지하교회 활동을 모르는 정부관료들 앞에서 떳떳이 활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두 갈래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나는 백만 소련군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예가 된 로무니아 인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갈망하는 소련 사람들

소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에게서 마치 하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련 사람들처럼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인 한 동방정교 사제님은 전화로 알려주기를 한 소련 군관이 그를 찾아와 회개하러 왔으나 자기는 러시아어를 모르니 러시아어를 잘하는 나의 주소를 적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그 군관은 나를 찾아왔습니

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본 적이 없었고 예배에 참석해 본 일도 없었습니다(쏘련에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종교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산상수훈이며 예수님의 비유들을 읽어주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그는 기쁨에 넘쳐 춤까지 추며 말하기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의 수난과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읽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을 듣고는 의자에 주저앉아 비통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숨졌던 것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목자로서 못사람들의 선생님이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여지껏 주님의 고통을 이 군관처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무덤 속에서 일어나심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는 무릎을 치고 일어나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소리치며 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도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뭔지 또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좋은 분이십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 라면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 선하십니다. 마음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일손을 멈추고 이 쏘련 군관이 드리는 기도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나는 한 상점에서 물건을 가득 사고 판매원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쏘련군 대위와 여군관을 만났습니다. 나는 자진하여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후로 우리들은 친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기독교인 집에 와 있으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식전에 기도드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러시아어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칼과 포크를 놓고 이것 저것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백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은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양 백마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협동조합에서 빼앗아 갈텐데요?” 그리하여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왕들은 다 인민들을 확대하는 나쁜 놈들이니 예수도 반드시 폭군이겠소” 하였고,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을 대항하여 나선 것은 잘한 일이요, 포도원은 협동조합에 속해야지요”라

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 알려주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안해인가?'라고도 물었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나는 소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용어들을 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앙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러 갔던 선교사는 이사야서에 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를 번역할 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 아프리카에서는 눈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야자수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도 성경말씀을 소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맑스주의 언어로 번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시어 하신 것입니다.

그 대위와 여군관은 그날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우리가 소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을 인쇄하여 소련 사람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은 소련 군인들의 도움으로 많은 성경과 책자들을 소련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또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련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전쟁터에 나와 있어 자녀들을 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소련 사람들은 특별히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나의 아들 미하이과 열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호주머니에

많은 성경과 복음책자들을 가지고 거리나 공원에 있는 소련 군인들을 찾아가면 그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도 하면서 집에 두고온 자식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초콜렛이나 사탕을 주곤 했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성경, 복음서와 책자를 주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면 위험한 일을 아이들은 안전하게 잘 해냈습니다. 이들 "꼬마 전사"들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소련 군인들이 꼬마들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련 군 병영에서의 전도

우리는 단지 개인적으로 만나 소련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한 것만이 아니라 작은 모임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시계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 가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시계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팔목마다 시계를 여러개씩 차고 다녔습니다. 또 여군관들은 자명종을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시계를 사려는 로무니아인들은 소련군 병영으로 가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빼앗겼던 시계를 다시 사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계 구입으로 인해 로무니아인들이 소련 병영에 드나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하교회도 시계를 구입한다는 좋은 구실로 병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동방정교 축제일을 나의 첫 전도날로 전하고 병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시계를 사는 것처럼 가장하고 병실에 들어가 이건 너무 비싸고, 저건 너무 작고, 또 이건 너무 크다는 식으로 흥정을 시작하니 많은 군인들이 몰려들어 자

기의 시계를 사라고 나섰습니다. 나는 농담조로 “여기 바울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몇명 있습니다. 그러자 나는 “오늘이 바로 당신들 동방정교에서 성바울과 성베드로를 축제하는 날임을 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몇 노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바울과 베드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라고 물으니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바울과 베드로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의 한 노병이 내 말을 막으며 말하기를 “당신은 시계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 말하러 왔소. 여기에 앉아 얘기해 주시오. 그러나 조심해야 하오. 우리는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오. 만약 내가 손을 당신의 무릎에 올려놓으면 시계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손을 내려놓으면 다시 복음에 관해 말씀하시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 대해 베드로에 대해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했음을 전했습니다. 얘기 도중에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분은 손을 내 무릎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머리를 시계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려놓으면 나는 다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쏘련 기독교 군인들의 도움으로 이런 방문이 여러번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수많은 성경들이 비밀리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지하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로인해 잡혀 무진 매를 맞았으나 교회를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쏘련 지하 교회의 형제님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을 듣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로부터 성도로 자라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공산주의 교양을 거쳤으며 또 어떤이들은 공산당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잔물에서 살지만 그 맛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비록 공산당 학교를 나왔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령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붉은 별 속에 망치와 낫으로 된 우리의 모표가 적 그리스도 별임을 알고 있습니다.” 슬픔에 찬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 다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다 지녔다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가집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 기쁨이 없어 집니다. 나는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한 형제님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왜 기쁨없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을 교회 목사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기쁨에 넘치겠습니까? 교회의 목사도 비밀경찰의 첩보원이며 우리는 시시각각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목자가 다름 아닌 양들을 팔아먹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외면의 기쁨은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전도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분은 새사람이 되어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하

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감옥에 잡혀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생기는 기쁨은 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과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기독교인 즉 지하교회 교인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유신론자인 소련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부 두 사람 다 조각가인 소련인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얘기하면 그들은 “아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재미나는 이야기를 알려드리지요” 했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스팔린의 조각상을 창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안해가 “여보 엄지 손가락을 보세요. 만약 우리가 엄지 손가락을 안쪽으로 굽히지 못한다면, 만약 손가락이 발가락처럼 생겼다면 우리는 망치나 책, 빵조각 같은 것을 잡지 못할 것 아니에요. 이 작은 엄지 손가락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하늘과 땅은(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겼다고 배웠지요. 나도 이렇게 배웠고 또 이렇게 믿어 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더라도 엄지 손가락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은 경배를 받아야 할 분입니다. 우리는 전등을 만들어낸 에디슨, 전화를 발명한 벨 그리고 증기 기관차를 발명한 스티븐스를 칭

찬하면서 왜 엄지 손가락을 발명하신 분을 찬송하지 않나요? 만약 에디슨이 엄지 손가락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발명하질 못했을 것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엄지 손가락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화를 내며 “안될 소리,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지. 무슨 일을 만들려고? 방안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소. 하늘에는 아무도 없으니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마오.”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조상들이 왜 신앙을 가졌으며 이 엄지 손가락은 스스로 생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손가락도 만드셨어요. 가령 하늘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는 내 엄지 손가락을 만드신 분을 믿을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부터 “존재하지 않는 자”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은 날로 커져서 엄지 손가락을 주신 분으로만이 아니라 하늘의 못별들, 꽃들, 아이들 등 생활 속의 모든 것을 주신 분으로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 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미지의 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당신들 생각이 맞았습니다. 하늘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지혜와 진리와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믿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역전에서 성경을 분포하던 한 자매님은 나의 주소를 한 쏘련 군관에게 주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그 군관은 나를 찾

아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 생긴 중위였습니다. 그는 빛을 찾으러 왔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에게 성경 중 제일 중요한 대목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더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는 그렇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몇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들었으며 나중에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쏘련 사람들은 종교적인 문제들을 경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종교를 반대하면 죽어라고 반대하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믿었습니다. 하기에 쏘련 성도님들은 다 열성적인 전도자들이었습니다.

한번은 쏘련 군관과 마주 앉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 군관은 강력한 무신 이론으로 반박하며 나섰습니다. 그는 맑스, 스탈린, 다윈 등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가며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거의 한시간 동안이나 열변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난 후 나는 그에게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왜 곤경에 처할 때 기도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마치 도적이 도적질하다 잡힌 것처럼 그는 당황하며 “내가 기도하는걸 어떻게 아십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먼저 내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승인했습니다. “전선에서 우리가 독일군에게 포위당할 때면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 그리고 성모님’이라고만

했습니다.”

쏘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선교는 커다란 결실을 맺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20대 청년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어느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는 한 지하교회 모임에서 주님을 만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식이 끝난 후 나는 그에게 어느 성경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으며 또 무엇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집회에서 내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였었다면서 그중 28절에 이렇게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실텐데 왜 더 가시려고 말씀하셨는지 납득이 잘 안된다며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은 예의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제자들의 의향을 물으시고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강제적으로 학교, 방송, 신문, 영화, 선전문, 회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어디에 가든지 자신들의 사상을 듣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그들의 무신론 선전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공산주의는 비할바가 아니었습니다.

그후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많은 성경과 서적들을 로무니아에서 소련으로 운반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잡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가 1959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하교회의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소련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내에서의 전도

소련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한편 우리 지하교회는 로무니아 동포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공산당은 집권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들의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혹의 방법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그후에는 테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믿은 분들과 한 감옥에

간혀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감방에 있었던 한 형제는 처자 일곱명을 남기고 들어왔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짐식구들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형제님을 예수님께서로 인도하였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족들도 불행을 당하고 있으니 형제님은 나를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처럼 좋으신 구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심을 무슨 말로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결코 다른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황에서 전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책자들을 인쇄했습니다. 도서 심사위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책제목을 “종교는 인민들의 아편이다”라고 달고 첫 페이지에는 칼 맑스의 초상화를 넣고 그 뒤로는 몇페이지의 맑스, 레닌, 스탈린 등 여러 사람들의 교시를 인용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앞페이지들만 펼쳐보고는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책 속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지하교회 활동의 일부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 시위 행사를 이용하여 “공산주의” 서적들을 판매했습니다. 그들은 앞표지를 보고 너도 나도 하며 책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페이지 정도 넘기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글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포들은 심한 억압 속에 살아갔습니다. 공산당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농민들의 땅과 집, 짐승들, 이발소와 양복점과 같은 작은 가게들 자본가들만 재산을 몰수

당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한명씩은 감옥에 끌려갔으며 빈곤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신 고난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하기가 어려웠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사실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 그도 우리와 같이 압제당하였으나 결국에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리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지하교회의 공개활동

지하교회는 개인 집, 수립숙, 지하실 등 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비밀집회에서 “공개”적인 활동들을 준비합니다.

공산치하에서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은 점점 위험해갔지만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안해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몇명의 성도들과 같이 길 어구에 모여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노래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때 나의 안해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합니다.

어느날 오후 안해는 부구레슈띠에에 있는 한 큰 공장 정문에서 수천명 노동자들에게 하나님과 구원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날 많은 노동자들이 공산당의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폭동에서 학살당했으나 그들은 복음을 제 시간에 바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교회입니다. 그러나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큰 소리로 일반 백성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무원 청사 앞에서 두 형제가 국무원 총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전했으며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년 후 이분이 심한 병환 중에 두 형제님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몇년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얻은 열매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병중에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가 죽음을 무릎쓰고 나섰기에 그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 형제는 오늘날까지도 용감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으로 공산권 나라들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교회는 비밀모임과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와 공산당 간부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하교회

들은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경찰(보위부)들은 지하교회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력한 저항세력임을 알고 있으므로 심한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령적인 저항세력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의 무신론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이상 허송세월 하지 않고 적극적인 존재로 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 한 가지 자신들이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잡아 넣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잡을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더 견결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하교회도 정부기관과 비밀 경찰서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비밀 경찰에 입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비밀경찰의 반지하교회 행동들을 우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많은 형제님들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사역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군복을 입음으로 가족들과 동무들의 경멸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내가 랍치 당하여 수년간 감금되어 있을 때 한 교인 의사가 보위원이 되어 일하면서 내가 간혀 있는 곳을 알아낸 것입니다. 보위부의 의사로서 그분은 나를 찾으려고 온 감옥의 죄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의 동무들은 그가 공산당원으로 변신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피했습니다. 핍박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죄인의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내

가 침침한 감방 속에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내가 팔년 반만에 만난 첫 친구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사람들은 알았으며,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는 1956년에 짧은 기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의사가 보위부 의사로 탄원하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석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위부 내에 들어간 지하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위협에 처한 교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산당의 높은 직위에서 자신들의 믿음은 깊이 간직한 채 우리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비밀리에 주님을 섬기지만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발각되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보위부에서는 자기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하여 때리고 공갈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제 2 장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1948년 2월 29일까지 국영 교회와 지하교회에서 동시에 주의 일을 맡아 했습니다. 바로 이 화창한 일요일 아침 레배당으로 가는 도중 보위원들에게 랍치되었습니다.

나는 성경 속에서 “사람 도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번 보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실감나게 배웠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랍치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갑자기 쫓차 한대가 내 앞에 멎더니 4명의 보위원들이 뛰어 내려 나를 무작정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나는 8년 동안 나의 생사여지를 아는 사람이 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위원들은 석방된 나의 감옥 친구로 가장하여 나의 안해를 찾아가 자신들이 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해는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 감옥은 각 교파에서 잡아온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직자는 물론 농민, 청소년들까지 예수를 믿는다면 다 잡아갔습니다. 로무니아 감옥도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같이 가득 차 있었으며 투옥은 고문을 의미했습니다.

대체로 고문이 심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문들에 대하여는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고문을 받은 날은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고문들

후르레스끄라는 목사님은 죽도록 매를 맞고 붉게 달아오른 쇠갈구리와 칼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간수들은 굶은 쥐들을 감방에 들여 놓아 목사님은 잠을 잘 수도 없고 쥐들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눈을 잠시 붙이려고 하면 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간수들은 그를 2주일동안 밤낮으로 세워놓고 동역하는 교인들을 배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14살난 아들을 데려다 그의 앞에서 사정없이 채찍질 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더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아들아, 나는 이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나는 더이상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러자 그의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주님을 팔아먹는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견지하세요. 만약 이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예수님과 조국을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악에 바친 간수들은 소년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감방벽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소년은 주님을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두 손목은 안쪽에 톱날로 된 족쇄로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지만 추운 감방에서 추위에 떨면 우리의 손목은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보위원들은 기독교인들을 거꾸로 매달고 모진 매를 들어 대어 몸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얼음으로 덮힌 냉동실에 교인들을 잡아 넣었습니다. 나도 속옷만 입고 끌려

들어갔습니다. 감옥 의사는 작은 구멍으로 우리를 관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얼어 죽을 것 같으면 그는 간수들을 시켜 우리를 따뜻한 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풀어지면 그들은 다시 냉동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고문은 여러번 반복적으로 가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까지도 냉동기 문을 열기를 꺼려합니다.

또한 보위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몸보다 조금 더 큰 나무 통에 넣고 고문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나무통 안벽 4면에 수많은 못을 박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면 아무 일 없으나 우리가 지쳐 조금만 치우쳐도 못은 사정없이 우리 몸을 찔렀습니다.

공산당이 기독교인에 대한 잔인한 고문 수단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나는 직접 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고문을 가할 때 얼굴에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바로 마귀다”라고 고래고래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즉 하나님의 영입니다.

나는 종종 고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동정심이란 말을 아시오?”

그러면 그들은 레닌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계란을 볶으려면 껍질을 깨야 하며, 나무를 베려면 톱밥이 날리기 마련이다.”

나는 다시 “나도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은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감각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유물론에 젖어있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물질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나무와 계란 껍질과 같은 물질로 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극도로 잔인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무신론주의자들은 나쁜 일을 하면 죄가 돌아오고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믿지 않으니 사람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자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내세도 없고 죄에 대한 심판도 없으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나는 여지껏 살아 오면서 나의 잔인한 수단과 방법을 다 쓸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악명높은 핍박자였습니다.

우리는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어는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악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초보적인 도덕과 양심이 없으며 또 이것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들로부터 배운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는데 기독교인들도 마땅히 사단 마귀와 싸워 우리 마음에 틈새를 남겨주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 상원 안전위원회에서 이와같은 무서운 고문에

대하여 간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4박4일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후 그들을 십자가에 매단 채로 마루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수백명의 죄수들을 강제로 그 묶인 사람의 얼굴과 온 몸에 소변을 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십자가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는 비웃기를 “보라, 너희들에게 천국의 향기를 가져다 주는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한 목사님은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 거의 신경이 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억압에 못이겨 대소변을 성도들에게 분배했습니다.

후에 나는 그분에게 “조롱당할 바엔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나를 판단하지 마시오. 나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묘사와 단테의 “지옥”에서 묘사한 고통은 공산당 감옥에서 행해진 잔인한 악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상의 실례들은 많은 핍박 중에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은 글로써 남기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의 장막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겪어온 고난의 길이며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옥 중에서 하나님의 충실한 아들로, 영웅으로 떠받들리는 성도 중의 한 사람인 밀란 하이모비치 목사님은 자진하여 다른 형제들 대신 매를 맞곤 했습니다. 감방에는 “죄수”들이 너무 많아 간수들은 우리를 잘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의 규율을 어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면 밀란 목사님은

자신이 나가 그 사람을 대신해 맞곤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공산당이 성도들에게 가한 각종 폭행들을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으며, 또한 성도들이 발휘한 희생 정신과 영웅적인 사실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우리 형제들이 받은 고난과 희생, 불굴의 투쟁정신은 자유세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크게 고무했습니다.

우리 지하교회의 한 젊은 자매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결혼식날 그녀는 곱게 차려입고 기쁨에 넘쳐있었습니다. 기다렸던 보위원들이 문을 박차고 결혼식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안 신부는 태연하게 두손을 내밀고 수갑을 채우게 한 다음 신랑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나는 나의 결혼식 날에 내게 이 수갑을 선물하신 하늘에 계시는 나의 신랑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라고 말하고는 끌려갔습니다.

5년후 그녀는 풀려 나왔으나 많은 고난을 겪어 30살이 넘은 아주머니 모양이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하여 이런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다운 지하교회의 모습입니까?

세뇌교육의 실상

조선 전쟁과 월남에서 실시한 세뇌정책에 대하여 서방사람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세뇌교육을 받아왔으므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해 동안 세뇌교육을 받았

습니다. 세뇌교육 날이 있어 그날에는 17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제일이다!

공산주의는 제일이다!

공산주의는 제일이다!

... ..

기독교는 어리석은 것이다.

기독교는 어리석은 것이다.

... ..

포기하라!

포기하라!

포기하라!

포기하라!

포기하라!

며칠 동안, 몇주 동안 심지어 몇달 동안이고 우리는 계속하여 하루에 17시간 동안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세뇌교육을 견디어 내는가를 물어봅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겼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고문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만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디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나는 철의 장막 속의 기독교인들이 주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고문이 그칠 때가 없었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면 보위원들은 나를 감방에 던져놓고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무참히 맞아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몇번씩이나 이런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나는 잡혀있는 기간에 여러개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4개의 척추뼈와 많은 뼈들을 골절시켰으며 12군데의 칼자리와 18개의 화상자리를 남겼습니다.

후에 많은 의사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나는 이미 몇년 전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어 나로 하여금 철의 장막 속의 지하교회가 겪는 이 현실을 전세계에 알리도록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잡간의 자유-재 투옥

1956년까지 나는 8년반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몸은 많이 축이 났고 보기 흉한 상처들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나는 수많은 못매와 굶주림, 정신적 고통, 질문, 위협, 공갈, 비웃음 등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문들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얻을 것이 없자 그들은 나를 석방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석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온 후 복음을 전하다가 일주일만에 다시 불러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 저는 두 차례의 설교를 했습니다. 당국은 나에게 설교는 물론 다른 종교 활동들도 참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까닭을 묻자 그들은 내가 “참고,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라고 설교했다며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올 때까지 참으라고 한 것과 같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사람들에게 “누구도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공산당은 꼭 망한다는 반혁명적인 설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나의 공식적인 교회사역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공산당국은 내가 이제는 접을 먹고 교회활동을 더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집식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숨어있는 교회들에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 남은 상처를 산 증거로 사람들에게 무신론의 죄악과 부패성을 날날이 폭로하여 믿음이 약한 형제님들이 주님을 믿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그때 나는 한 지하 복음 전도 조직을 인솔했습니다. 우리는 일심단결하여 서로 도우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보위원들의 끊임없는 미행으로 마침내 나는 다시 잡혀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들은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3년만에 다시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5년반 이상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면에서 정황이 더 어려웠습니다. 처음부터 건강상태가 말이 아니었

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지하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 그들은 때리고

감옥 내에서도 전도는 절대 금지되었고 전도하다 잡히면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댓가를 치를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그들은 핍박합니다. 우리는 전도함으로 기쁘고 그들은 우리를 때릴 수 있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쌍방에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러했습니다.

한 형제가 한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간수들이 나타나서는 그를 고문실로 끌고가 때립니다. 피투성이로 만들고는 감방에 다시 끌어와 바닥에 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 형제님은 서서히 몸을 일으켜 옷 매무새를 바로하며 “여러분, 내가 아까 어디까지 전했습니까?”라고 물으며 계속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이 성령충만하여 전도합니다. 위험한 환경에서도 전합니다.

셀라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레규라는 한 형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위원들은 몇주일 동안 그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때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악독했습니다. 그들은 고무곤봉으로 그의 발바닥을 때리고 몇분 후에 또 때리고 또 몇분 후에 또 때리다가 정신을 잃으면 의사를 불러 주사를 맞히고 그가 회복하면 음식을 먹여 힘을 얻게 하고는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때렸습니다. 결국 그 형제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고문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었던 렉크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의 생사권은 나한테 있다. 하늘에 있는 너의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기에 달려있다. 내가 너를 살리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너는 죽어야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이 말을 들은 그레큐 형제는 아주 험한 처지에서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므로 당신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습니다. 당신들은 결코 핍박자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마음 속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렉크 선생, 당신의 천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지 핍박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바울처럼 나도 그레큐 형제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훗날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적 고통을 통하여 영이 사람의 육체를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급되는 식량은 매주 한조각의 빵과 매일 나오는 국물 뿐이었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는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매 열번째 주일마다 우리는 자신의 빵을 십일조로

몸이 약한 형제들에게 주었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은 한 형제님은 마지막으로 안해와 면회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두오.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신도 저 사람들을 사랑해 주오. 원망하지 말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말은 옆에 서 있던 한 보위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후에 그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으며 이로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그가 감옥에서 나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마체뷔치라는 젊은 형제는 18살부터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심한 핍박으로 그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부모님들은 마이싱 백개를 얻어 들여보냈습니다. 이 약들은 정말 그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소의 정치 지도원은 그 어린 형제를 불러 그에게 약들을 보이면서 “보라, 이 약들은 너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규정상으로 너희들은 집에서 보낸 물건을 받을 수 없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너를 돕고 싶다. 너는 아직 젊은데 이렇게 죽을 필요는 없지 않아. 그러니 만약 네가 나에게 너의 동료들을 고발하면 나도 상급의 비준을 받아 약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들을 배반하고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으니 그 조언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지도원은 “너는 진짜 사내다. 나도 너에게서 비밀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게 한가지 좋은 수가 있다. 너희들 중에는 이미 우리의 첩자가 된 자들이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너희들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네가 볼 때 그들은 배신자들이지. 네가 너의 동료들을 밀고하지 않음을 나도 안다. 그러나 그 배신자들만 감시해 주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즉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우리를 팔아 먹었지만 나는 결코 그들을 악으로써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공산당과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체뷔치 형제는 이렇게 다시 자기 감방으로 돌아왔으며 거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은 한 인간이 생명에 대한 갈망과 미련까지도 다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보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기간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원래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영광스럽게도 수많은 위대한 성도님들,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령적인 아름다움은 글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죽음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내가 이 책에 서술한 실례들은 특별한 사실들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는 일들임을 알려드립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령적 지체인 지하교회를 그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나는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희생정신을 보았습니다.

내 안해와 자식이 당한 일들

나는 감옥에 갇힌 후 가족의 소식을 전혀 알길이 없었습니다. 몇년 후 나는 안해도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독교인들이 겪은 고통은 남자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젊은 자매님들은 간수들에게 모독, 희롱 심지어 강간까지 당했습니다.

그들은 운하를 파야 했는데 남자들과 똑같은 작업량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또 창녀들을 감독으로 내세우고 성도들을 학대하게 했습니다. 굶주림과 고역에 시달린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뱀과 쥐를 잡아 먹었으며 나의 안해는 풀을 뜯어 먹어야 했습니다. 일요일이면 간수들은 여성들을 다뉴브 강에 밀어 넣고 다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을 한가지 희락으로 여겼습니다.

나와 안해가 잡혀 들어간 후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유랑아가 되었습니다. 아들 미하이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강했지만 9살 밖에 안되었던 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여 그의 신앙에 동요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가족들을 도와주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미하이를 몰래 도와주던 두 자매님들이 잡혀가 매를 맞아 불구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한 자매님은 위협을 무릎쓰고

미하이를 집에 두었다가 잡혀 8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빨은 모두 구두발에 채이어 부러졌으며 뼈들이 골절되고 노동력을 상실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미하이, 예수님을 믿어라!”

미하이는 11살부터 밥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고통은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안해는 갇힌지 2년 만에, 미하이는 어머니와의 면회 허락을 받았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여위고 지친 모습, 남루한 죄수복을 걸친 어머니를 보았을 때 미하이는 첫 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외친 것은 “미하이야, 예수님을 믿어라” 였으며 이에 격노한 간수들은 그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눈물 흘리며 어머니가 끌려가는 장면을 지켜 본 미하이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으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처지에서도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은 필경 믿을만한 구세주라고 미하이는 생각했습니다. 훗날 미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어머니의 신앙만 보고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미하이는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생존을 위하여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모범학생이었으므로 당연히 소년단원임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을 옥에 가둔 당신들의 넥타이를 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하이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몇년 후 그는 “기독교인 감금자”의 자식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다시 입학했습니다. 후에 학교에서는 성경을 반대하는 작문을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미하이는 작문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리유는 불충분하며 인용된 내용들도 진실치 못합니다. 나는 선생님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과학과 아무런 충돌도 없습니다.”

미하이는 또다시 출학되어 2년동안이나 학교에 다니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하이는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도 명목상은 신학교였지만 실제로는 “맑스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수 내용들이 맑스주의를 지침으로 해설되었습니다. 미하이는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항의를 들이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에 호응해 나섰습니다. 그 결과 그는 또 쫓겨났습니다.

한번은 수업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신론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미하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년들을 나쁜 길로 이끄는 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전학급 학생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때는 한 사람만 먼저 대담하게 말을 떼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호응해 나섭니다.

학교에 다니기 위해 미하이는 자주 자기가 범블란트의 아들임을 속여야만 했으나 얼마 못가서 사실이 알려져 그는 학교에서 쫓겨나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미하이는 또한 굶주림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사회주의 나라에서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의 가족들은 굶주림에 시달

려 신음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범죄 행위로 정해 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기독교인 가정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형제님은 지하교회 사업을 하다가 처자 일곱명을 두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공산당 국가들은 국영기업들만 있어 국가 배치가 아니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형제님의 19살과 17살난 딸들은 “범죄한” 기독교인의 자식임으로 취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래의 내용을 도덕적 차원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받아주시길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병석에 누운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팔 수 밖에 없었습니다. 14살난 남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서는 미치고 말았으며 몇년 후 아버지가 석방되어 나와 참경을 보고는 “하나님, 저는 이 참경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다시 감옥에 갇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후에 그는 다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죄명으로 투옥되었습니다.

두 딸은 후에 보위부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의 자녀들이었으므로 성도들의 신임을 얻고 비밀례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례배가 끝나면 그들은 그 내용들을 보위부에 밀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더럽고 부도덕한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3 장

서방나라에서 사역하기 위한
몸값과 석방

14년간의 감옥생활은 끝났습니다. 그 기간 저는 성경과 기타 다른 서적들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굶주림, 고문과 약물복용으로 인해 성경의 내용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출옥한 후에 내 머리 속을 스치며 기억나는 성경 구절은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14년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며칠 후 나는 전국적인 대사령이 내려졌을 때 석방되었습니다. 저의 석방은 미국 언론의 영향도 컸습니다.

나는 14년 동안을 기다려 준 안해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난한 조건에서 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투옥되는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했기 때문입니다.

석방된 목사나 신부들은 자그마한 교회들을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르소바 읍의 한 교회를 맡았습니다. 이 교회를 맡기면서 정부의 종교국 간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는 35명의 교인이 있소. 앞으로 한명이라도 더 증가되어서는 안되며 당신은 그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다 우리에게 보고해야 하오. 그리고 절대로 젊은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오.”

공산당은 이렇게 교회를 자신들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만약 내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으러 올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으므로 국영교회에서는 그 생각부터 포기하고 비록 위험하지만 지하교회 활동을 다시 전개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하교회는 더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성원하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내가 시골의 한 형제님 집에서 잠간 쉬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깨우며 “해외에서 오신 형제님들이 도착하였습니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서방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기독교 조직은 비밀리에 고난받고 있는 기독교 순교자들의 가족들을 돕고 기독교 서적들을 공산권 나라들에 밀반입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방에서 6명의 서방 성도님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후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14년동안이나 감옥생활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분을 만날 수 없을까요?”

나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울적한 그분의 모습을 그려 왔습니다. 형제님은 기쁨에 넘쳐 있으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그 사람이라고 알리고, 그분들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쁨에 넘쳐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정상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과 다른 책자들을 받을 수 있었고 순교자 가족들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 지하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의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랑과 위안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몇년 간의 세뇌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도 없다. 아무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릎쓰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조언을 받아 그들은 더 지혜롭게 지하활동을 벌여 나갔습니다. 그들은 보위원들이 감시하고 있는 집들을 보위원들 몰래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밀반입되어 우리들 손에 닿은 성경들은 엄청난 가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헤엄칠 정도로 많은 성경책 안에서 사는 서방 기독교인들은 그 참뜻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서방 기독교인들의 물질적 지원이 없었으면 나와 가족들은 오늘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순교자 가족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방 성도님들의 물질적 도움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과도 같았습니다.

새로운 지하교회 활동으로 인해 나는 다시 체포될 위협에

처했습니다. 이때 노르웨이 유대인 선교회와 유대인 기독교 연맹은 일만달라의 몸값을 지불하여, 나는 로무니아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왜 로무니아를 떠나야 했는가?

내가 다시 체포되는 위험이 있더라도 나는 로무니아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내가 이 기회에 서방으로 나가 지하교회를 대표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를 부탁했습니다. 내 몸은 로무니아를 떠났지만 저의 마음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로무니아를 떠나기에 앞서 보위부는 두번씩이나 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미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로무니아 정부는 어려운 경제 위기 때문에 백성들을 팔아 먹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서방에 가면 마음대로 예수를 전하시오. 그러나 우리를 건드리면 안되오. 우리를 반대하는 언사를 삼가하시오. 솔직히 말해주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날에는 우리가 깡패들을 사서 당신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랍치해 오겠소(나는 오지리에서 랍치되어 잡혀온 바실레 룰이라고 하는 사제님과 한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톱은 다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잡혀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간에는 이탈리아와 빠리에서 랍치된 로무니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당신을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당한 여인관계, 도적질, 그리고 청년시절의 범죄행위들과 같은 이야기를 서방사람들—특히 미국놈들—을 쉽게 속일 수 있소.”

이렇게 위협을 주고는 나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뇌교육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처럼 서방나라들에 나온 사람들이 침묵을 지킬 뿐아니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965년 12월 나와 우리 가족은 로무니아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직전 나는 나를 잡으라고 명령한 대위의 묘지를 찾아가 그 앞에 꽃을 놓으며 령적으로 불쌍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 체제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사랑합니다. 나는 죄를 증오하지만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비록 기독교인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죽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추호의 비통이나 원한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제 4 장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산주의를 패배시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홍해 바다 속에 멸하실 때 천사들도 그들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들이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당연히 기쁜 일이지만 애굽 사람들도 내가 만든 인간들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들도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들의 비극을 보고 슬퍼하지도 않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고 물었습니다(여호수아 5:13).

만일 여호수아가 만난 그분이 그저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의 대답은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나는 당신들을 위할 것입니다.
2. 나는 당신들의 적을 위할 것입니다.
3. 나는 중립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만난 그분은 살과 뼈로 된 인간이 아니

므로 아주 깨닫기 어려운 “글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편견이 없고, 객관적이며,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동정과 사랑으로 충만한 령적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사회에는 인간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표준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투쟁되어야만 하며 또 이런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도 투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공산당 감옥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했지만 그들을 증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들과 동무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인류에게 제일 큰 위협입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견결히 반대할 뿐아니라 이를 소멸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령적으로 볼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속해 있으며 생각도 그분의 생각에 맞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죄행을 저질렀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공산주의자들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며 99명의 의인보다 1명의 죄인이 회개하여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력대의 성도님들은 다 이 무한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성 마카리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는 모든 사람들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에는 아직 제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만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 각자를 사랑하십니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명확하게 공산주의자들도 사람이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하지만 죄인은 사랑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핍박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25kg되는 족쇠를 채우고 붉게 달아오른 쇠갈구리로 지지고, 소금을 가득 먹이고는 물을 주지 않으며, 굶기고 채찍질하고 얼구는 등 수없이 많은 형식의 고문을 들이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고문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 깊이 뿌리박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공산주의자들도 후에는 감옥에 끌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공산당은 기독교인들만 붙잡아 넣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잡습니다. 심지어 고위급 간부들도 제외가

없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죄수들은 그들을 때리고 몰아줍니다. 그럴때면 우리는 매를 맞는 위험과 공산당과 한 짝이라는 루명을 쓰면서도 그들을 저지시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조각의 빵과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약을 이전의 핍박자였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울리우 마니무 전 로무니아 총리는 감옥에서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이 땅에서 밀려날 때면 억눌렀던 원한을 풀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릎쓰고 공산주의자들을 분노에 찬 군중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보호하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초기에는 거리에서 내 걸을 스쳐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과연 저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얻었는지를 생각하노라면 내 마음은 칼로 에이는듯 아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어느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지으면 나는 그들을 위해 몇시간 동안이나 울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항상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겠다는 소원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도 포함해서입니다.

우리는 가끔 독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굶주림을 이겨나가야 했으며 흥분제를 바보가 되도록 주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정말 뼈만 남아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기도문마저 우리에게는 너무 긴 기도였습니다. 나는 그저 반복적으로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만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마.”

그러자 나는 마음 속에서 태양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는 것과 같았다고 하였는데 나도 지금 그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상에서 바치셨음을 나는 알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마치 죽음 앞에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그 누구든지 다 굴복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목사님은 죽도록 매를 맞고 감방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를 씻어주며 어떤 사람들은 격분하여 간수들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신음하며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조용해 주시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심지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14년간의 감옥생활을 돌이켜 보면 즐거운 나날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 범인들과 간수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무서운 여건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나는 옥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신 말씀을 놓고 묵상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팔레스티나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티나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여행길에서 본 것은 질병과 굶주림, 슬픔에 잠긴 사람들과 나라를 사랑한다고 잡혀간 애국자들의 통곡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통만을 본 것이 아니라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비가 처음에는 보기 흉한 번데기로 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아름다운 꽃나비로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비가 흉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치듯이 고난들을 이긴 후에는 복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욕과 같이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 아니 욕보다 더 많은 시련을 당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결국에는 욕이 이전보다 배나 되는 것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같이 굶주리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나중에 나сар가 천사들에게 이 클리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이들의 미래 또한 멋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 앞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변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듣고 앞으로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보위원들

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채찍질하는 간수들을 보며 우리는 이전 날의 빌립 보 감옥의 간수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다가 후에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이 어느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게 대변을 발라놓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독하는 간수들의 모습을 볼 때 마치 골고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후 가슴을 치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감옥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그들의 고문을 당하므로 그들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저의 일가친척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해 당했으나 바로 저의 집에서 그 살인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감옥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견해가 개미들보다 뛰어나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들보다 훨씬 깊으신 것입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볼때 인분 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지만 성경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로서는 감옥에서의 14년이란 긴 시간이지만 성경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

다.

우리가 볼때 공산당이 50여년간 저지른 만행과 죄악은 아주 많고 크지만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 앞에는 순간 밖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언제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문은 오늘도 공산주의자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만이 공산주의자들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내가 말하는 사랑은 많은 국영교회 지도자들이 공산당과 타협하고 심지어 그들과 손을 잡는 그런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히틀러는 반공산주의자였으나 그는 미움을 받는 자였으므로 공산당을 점령한 대신 그들을 도와준 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우리는 사랑으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전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공산당 간부들을 전도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 보려 합니다.

노르웨이는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올라프 국왕이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입니다. 로씨아는 블라디미르 국왕이 변화된 후부터 웡그리아는 성 스테반에 의하여, 폴스까도 그렇고 아프리카 지역들도 추장이 믿음으로 그 부락 전체가 변화되어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온 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리고 경제, 과학과 예술 부문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신들이 변화되면 많은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고도의 중앙집권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례를 들어서 만약 미국 대통령이 몰몬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다 몰몬교의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택동이나 차우체스크가 믿었다면 전체 국민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집권자들의 영향력은 이렇게 큼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기쁨을 보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의 종말을 보면 거의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면 암살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고위급의 간부들도 사чит하면 반혁명분자로 낙인찍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공산주의를 영적으로 공격할까?

공산주의 제도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간부들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느 밤에 보위부 차가 들이닥쳐 그들을 끌어갈지 몰라 걱정 속에 마음을 조이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많은 간부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세계를 핵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해 내며, 아무 유익없는 군비 경쟁을 줄여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긴장

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도하기 어려운 뉴기니아와 마다까스까르와 같은 지역들도 전도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큰 승리를 의미합니다.

나는 젊어서는 강력한 무신론자이었기 때문에 알지만 무신론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열성이 대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우리는 전략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견지에서 볼때 모든 영혼은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선교전략의 견지에서 볼때 이는 다릅니다. 영향력있는 영혼, 앞으로 수천 수만명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수림 속에서 확실히 구원받은 한 영혼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작은 마을에서 마치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령적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마치셨으며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려고 많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녀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변두리에서 사단을 노릴 것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인 모스크바와 베이징 일대에서 공격하여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 일꾼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나 여호와와 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령적인 정면공격

을 가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공격자의 것이지 방어자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교회도 이제는 더이상 바라만 보지 말고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령적 공격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쇠빛장을 꺾으셨다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철의 장막도 그분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선조들의 사업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결코 교리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지하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이 각오를 증명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한 지하교회를 인솔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시 랍치되어 투옥될 위험이 많으나 나는 결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산당과 손을 잡은 미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믿은 바에 대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상과 감정을 교류하고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함과 령적 세계의 오묘함을 말로써 표현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잔인성 또한 말로써 형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신은 몇마디의 말로써 사람이 독일군에 의하여 화구속에 던져지는 장면을 목격한 심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말로써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받은 고난과 지금도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로무니아 공산당을 인솔하여 정권을 잡은 파트라스 카누와 같이 감옥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와 어깨 절고 같이 싸웠던 혁명동지들에게 잡혀 투옥 되었으며 멀쩡한 그를 신경병원에 가두어 넣어 정신이상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전 국무 대신이었던 안나 파우커도 같은 형식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역시 종종 이런 참상을 당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홍위병들 또한 무법천지인 테로자들입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폭행들을 들이댈 것입니다.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중국의 유명한 복음 서적 작가와 몇명의 성도님들이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자 간수들은 그들의 귀와 혀, 그리고 두 다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사람의 육체를 불구로 만들고 심지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과 인식, 특히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심령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자기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권을 장악하게 하고 청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여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책동하였습니다.

수년간의 고난을 겪고 집으로 돌아간 기독교인들이 만난 그들의 자녀들은 철저한 무신론자들이 되어 그들을 경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말할 수 없

는 비극입니까?

이 책을 먹물로 썼다기 보다는 수많은 고난을 겪은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로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 속에 던져졌어도 불에 그슬린 냄새도 없이 나온 것처럼 감옥에서 풀려나온 성도들도 간수들을 원망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름답게 핀 꽃을 짓밟으면 꽃은 원망대신 향기를 안겨 줍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도 그 많은 폭행을 당했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공산주의자들을 감화시켜 많은 간수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최상의 선물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핍박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력사의 교훈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몇 세기동안 북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성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은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까지도 이 지역은 회교도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회교도들은 변화시킬 수 없는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력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 시기에 후스와 마틴 루터와 칼빈 등 개혁자들이 당시에 구라파 인민들의 관심사였던 교황권 철폐 문제에 맞추어 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공산주의자들과 그

의 희생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하교회의 관심도 자유를 누리려 하는 인민들의 관심과 일치합니다.

쏘련 작가 일리야 엘렌부르그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스탈린이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가 죽인 사람들의 이름만 일생동안 쓴다 해도 다 쓰지 못할 것입니다.”

브르쥬네브는 쏘련공산당 제20차 전원회의에서 “스탈린은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선된 139명의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 위원중의 70프로인 98명을 체포 및 총살하였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무수한 당원들을 숙청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행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브르쥬네브도 스탈린과 별다른 바 없었습니다.

1959년후부터 지금까지(책을 쓴 당시) 쏘련의 교회는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선봉으로 반기독교 투쟁을 야만적으로 진행하여 공식적인 교회활동은 일절 단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쏘련과 로무니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우리가 얼마 전 들은 소식에 의하면 쏘련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10억이나 되는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은 폭력과 기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 자본주의 나라, 특히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쏘련 당국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보위원들을 교회 문앞에 파견하여 단속하며, 들어간 아이들은 맞

고 쫓겨납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독교를 적대하는 미래의 주인공들을 계획성 있게 키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숨어 있는 지하교회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 지하교회를 지지하고 돕는 것이 단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것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나라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을 위한 일입니다. 이는 또한 자유국가들의 기독교인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자유국가들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지하교회는 이미 공산당 간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로무니아의 게오르규 총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회주의 나라들의 정부요원들 중에는 공개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는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일부 공산당 정권은 기독교적이고 자유적인 정부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 충심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에는 형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의 현실은 그들이 개처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공산주의가 지구상에 지상락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할 수 없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쌀을 수입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수령을 철석같이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의 신분에서 스탈린은 대학살자며 브르죈네브는 바보라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여 그들

은 더 이상 자신들의 수령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예수님만이 채워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천성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령적인 공허감을 없애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당했으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들이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편애가 없는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서방의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원수들도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신 말씀으로 공산주의자들과의 친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형제 자매들을 제끼고 원수들과 화해하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들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대신 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한 자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성도들은 그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서독의 개신교와 천주교는 지난 7년간 1억2천5백만 달러의 구제금을 냈으며 미국의 교회들은 더 많은 돈을 냈습니다.

세상에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난받는 성도님들보다 더 심한 굶주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으며 당연히 자유스러운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과 북구라파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구제함에 있어서 우선은 고난받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나의 경우를 볼때 고난받는 성도들이 몸값을 치르고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로무니아에서 나온 사람은 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주이기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서방의 기독교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산권 기독교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고 또 믿어야만 합니다.

사회주의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사랑과 열성이 충만하며 이전날의 공산주의자가 변화되면 더욱 열성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하시여 그들이 공산주의에서 해방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일부 서방의 교회지도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죄행을 감싸주므로 복음의 전파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석방된 후 알게 된 것들

나는 출옥하여 다시 가족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안해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싶소”라고 말하자 그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젊을 때 쾌활한 사람이었으나 몇년간의 감옥생활을

거친 후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그 어떤 풍파도 선낼 수 있게 되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심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소망이 그리 많지 않았으므로 큰 희망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다가도 혹시 풀려나면 조용한 곳을 찾아 하늘나라 신랑이신 주님과 연합을 계속하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성경은 이 “진리”를 알리는 진리의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은 이 “진리”를 알리는 진리를 풀어주는 진리의 학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많은 “진리”에 관한 진리를 대하다 보면 귀중한 “진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굶주림, 고문, 그리고 투약을 당해 우리는 신학과 성경에 관한 많은 것을 잊었으나 “진리” 속에는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인자(예수님)는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날에 올 것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에 예수님께서서 우리가 고문 당하던 어두운 감방에 나타나셔서 감방 안을 밝게 비치시고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은 멀리 우리 아래에 있고 우리의 령혼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아무 사람과도,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라도 분쟁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과 교제를 더 잘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출옥하면서 그렸던 나의 장래였습니다.

그러나 출옥하던 그날부터 나를 맞이한 것은 감옥에서 보다도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정부는 아주 추한 방법으로 기

독교인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석방된 후 만난 다수의 목사들과 신부들, 그리고 전도사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은 보위부의 정보 제공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들에게 다시 잡혀들어 가더라도 밀고를 안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구동성으로 “아니다”였으며 자신들이 잡혀가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며 지금은 이전과 달리 그들이 비밀 제공을 거부하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매 읍마다 보위원을 두고 전문적으로 종교사업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든지 불러 들여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예를들어 몇번 성찬식을 하는가, 누가 가장 열심히인가, 누가 영혼 구원함에 앞장서는가 등을 묻고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알려주지 않으면 면직 당하고 대신 말 잘듣는 “목사”가 교회를 인도하며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음) 교회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목사들은 보위부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나는 순교자들의 자식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돌봐주는 기독교인들의 일거일동을 보위부에 보고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학교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나는 붉은 기 아래서 개최된 침례교 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공산당이 교회 지도자들을 선거하였습니다. 나는 국영교회의 지도층은 공산당이 지명하여 내세운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

수님께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든지 선한 목자와 사탄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해온 력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를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레닌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 사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극히 위험하고 나쁜 감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사상은 모든 범죄, 추악한 행위와 잔폭한 행동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레닌의 방침을 따릅니다. 그들은 종교를 암이나 결핵과 같은 질병보다 더 나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공산당 정부는 자기들의 요구에 맞는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뽑습니다. 선발된 국영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모든 일을 정부와 협조하여 맡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무신론에 빠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영교회는 이 일에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부끄레슈띠에는 청년회나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자녀들마저 미움과 증오만 교육받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나는 공산주의를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그들의 통치

하에 있는 10여억의 령혼들을 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나를 찾아와 협동화가 어찌된 판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들은 이전날의 자기 땅에서 배를 곯면서 노예가 되어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부족하고 애들에게 우유와 과실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무니아는 이전날의 가난한 땅처럼 비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공산당이 그들을 도적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못이겨 자신들의 소유지였던 땅에서 곡식을 “훔쳐 먹고”는 농장에 거짓말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생산 공장의 경우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착취를 당하며 로동자들은 파업할 생각조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세계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이 파괴되고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련애도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사로칭원은 예수 믿는 사람과 사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허위적이고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나는 이전날의 지하교회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이들은 이제껏 잡히지 않고 싸우고 있었으며 어떤이들은 잡혔다가 석방되어 다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도 자신들과 함께 싸울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비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다 손으로 베긴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예수님과 바울과 다른 믿음의 성도들의 길을 따라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싸울 것인지?

기독교인들은 감옥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원하고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기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공산주의 체제를 미워하고 유일한 복음의 능력으로 지하교회를 성장시켜 공산당 폭정을 타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로무니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산권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서방에서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쏘련의 작가 시나이브스끼와 다니엘 두 사람이 판결을 받아 투옥되었을 때 전 세계의 작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나라들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잡혀갈 때에는 교회들마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쿠저크 형제가 “해를 끼치는” 기독교 출판물을 반포하였다 하여 구속되었을 때 그 누가 관심을 보였습니까? 프로코 피애프 형제가 설교집들을 배포하였다 하여 잡히고 쏘련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 그룬발트도 같은 혐의로 잡혀서 집식구들과 영원한 리별이 되었음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룬발트 형제가 어린 아들과 리별할 때의 심정을 나도 겪어 보았으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넨코, 쉘브추크, 타첸코, 베까지나, 베까진,

라트비아의 필라트 부부 등 수많은 21세기의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하며 서의 마음도 이들과 함께 고난받는 심정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동료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였던 것처럼). 나도 머리 숙여 그들의 족쇄에 입맞춥니다.

서방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 순교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않으며 고문과 형벌을 받을 때 소련의 침례교와 동방정교도의 지도자들과 뉴델리에서, 제니바와 다른 지역들에서 회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란 바로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배신한 자들이 소련에서 종교 자유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니코덤 대주교는 이 종교자유를 약속하여 세계교회 협의회의 한 지도자의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세계교회 협의회(W.C.C)의 간판 아래 연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성도들은 배추에 씻지도 않은 내장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지하교회는 조건이 마련되면 내가 로무니아를 떠나 이 사실들을 전세계에 알리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공산주의는 싫어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사랑합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그대로 놔두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순수한 복음만 전하시오.”

이 말들은 나로 하여금 보위원들이 예수만 전하고 공산주의는 건드리지 말라고 한 말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위원들과

같은 령감을 받은 것은 아닌지요?

나는 무엇을 가리켜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왔다”고만 외친 것이 아니라 “헤롯이어 당신은 잘못하였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론적인 설교만을 하지 않았으므로 목이 잘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만 하신 것이 아니라 “화 있으리라 너희 룰법사들,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아”라고 욕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순수하지 않은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죄는 명확하게 갈라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오늘날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죄입니다. 공산주의와 공존하려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지하교회는 생명과 자유를 잃을 위험을 무릎쓰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더이상 침묵을 지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것이 반공분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증오하지만 죄인은 사랑합니다.

왜 내가 서방세계에서 고난받는가?

정신적으로 볼 때 나는 로무니아에 있을 때보다 서방세계에 있을 때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지하교회를 그리워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옛 라틴어 격언이 바로 그 지하교회들의 모습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벗은 자들이여, 벗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가라.”

사회주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예수민는 사람들은 머리 들 곳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을 지어서 뭘합니까? 체포되어 잡혀가면 몰수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집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 집이 욕심난 보위원들은 그들을 잡아가지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사망한 아버지를 묻고 오거나 집사람들과 작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어머니며, 누가 형제 자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며 형제인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안해가 남편을 고발하는 사회에서 혈육관계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교회는 가난하고 고난받는 교회이지만 덤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볼 수 없습니다.

지하교회의 예배의식은 천구백년전의 초대교회와 같습니다. 말씀전하는 자는 복잡한 신학을 모르며 베드로처럼 설교법도 모릅니다. 성경이 거의 없으므로 성경 구절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설교자는 몇년 간의 감옥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성경을 읽을 기회는 더 적은 것입니다.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감옥에서 고문받고 굶주림을 당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욕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일지라도 그분을 믿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지하교회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텅빈 서방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서양문명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며 이전에 감옥에서 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왈드 스펡글러는 “서양의 쇠퇴”라는 저서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너는 멸망해가고 있다. 나는 너에게서 쇠퇴의 특징들을 다 보았다. 나는 너의 빈부격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전쟁과 혁명, 무신론과 염세주의, 그리고 권유주의, 너의 부도덕과 너의 파괴된 결혼, 너의 산아 제한 등 모든 것이 너를 위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고대의 알렉산더와 희랍, 그리고 로마의 멸망의 징조이기도 하였다.”

이 글은 1926년에 쓴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구라파의 절반 지역과 쿠바의 민주와 문명이 이미 꼬꾸라졌으며 서양의 나머지 부분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동구라파의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고 있는 반면 서양의 공산주의자들은 아직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핍박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게 가는 곳마다 공산주의를 선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미지근하게 대하지만 그들은 거짓된 것을 열성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신학자들은 하찮은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1493년에 모하메트 2세의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여 발칸 지역이 기독교를 믿을 것인

지 무슬람을 믿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기에 그곳의 교회의 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성 마리아의 눈은 무슨 색깔까? 천사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만약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파리가 성스럽게 되는가, 물이 오염되는가? 등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전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 간행물들을 보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위협과 지하교회의 고난과 같은 말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문제, 의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중요치 않은 문제들만 끝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잡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한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서서히 침몰되는 배에서 빠져 나와 외딴 섬으로 갈 때 배의 도서관에서 단 한권의 책만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면 당신은 무슨 책을 고를 것입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성경”이라고 대답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섹스피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제를 제시한 사람이 정답을 밝혔습니다. “나라면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을 골라서 배를 만들어 돌아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을 마음대로 읽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유가 없이는 다른 그 어떤 문제도 중요한 것이 못됩니다. 우리는 교파와 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을 물리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자유, 오직 자유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줄 것이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놓고 다룰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공산당 폭정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사회주의 나라들의 교회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나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으며 나도 그 길을 걸어왔으므로 그들의 고난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1966년 6월 소련의 신문들은 침례교가 교인들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의례적 살해죄를 들썩였던 옛날 수법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소련의 신문들이 말도 안되는 일로 침례교를 비난한다고 비웃을 것이지만 사실상 이런 보도의 막 뒤에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소련의 총 대주교 알렉세이와 대주교의 니코딴은 공산당의 도구가 되어 정부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반대하여 7명의 주교들이 들고 일어나 감옥에 잡힌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같은 일로 잡혀 감옥에서 돌아간 로무니아의 한 주교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이 목사와 클렙 목사는 교회의 신앙자유를 요구하였다 하여 총대주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서방세계에서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상황은 더 심했습니다. 나는 그와 비슷하게 교회의 처벌을 받아 잡혀 들어온 로무니아의 요안 신부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교회의 처벌만 받는 것 같지만 사회

주의 나라들의 교회 지도자들이 보위부와 련결되어 있어 그들은 또한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공산당 숙영소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인하여, 핍박자들의 령혼이 영원한 형벌 아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돕지 않고 있는 서방의 기독교인들을 인하여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의 마음 속 깊은 곳에도 조용히 안락한 생활을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눈 앞에서 기승을 부리는데 어떻게 앉아 보고만 있겠습니까?

공산당은 내부분의 교회들을 철폐하고 한 두개만을 남겨 놓고 외국인들에게 보여 주어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현실 도피한다면 이는 나의 령혼에도 위험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나 자신으로 볼때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면 이는 로무니아 보위부가 나를 랑치한 것입니다. 1948년도 그들이 나를 랑치하여서는 가명으로 나를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피살되었다면 이는 분명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죽일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 관한 옳지 못한 소문이 들린다면 이것 역시 그들의 작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내보내면서 그렇게 협박하였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소식통에 의하면 내가 미국의회에서 간증을 한 후 로무니아 보위부는 나를 살해하라고 명령내렸다는 것입니다.

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다 써서라도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나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며, 또는 국내에 있는 내 친구들을 인질로 잡아 나를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도대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무엇이기에 백성들에게 이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음을 무릎쓰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사선을 넘어 서독으로 뛰쳐 나오겠습니까?

서방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 *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지워 부담을 돌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하는 서방 교회지도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래전부터 있는 것이며 이들은 단지 이 죄의 희생자들 뿐입니다. 교회의 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나는 서방에 이주한 후 많은 신학교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교회의 종의 역사, 성찬식, 음악의 유래, 그리고 옛날 교회의 교리들 같은 것이었으며, 창세에 관한 내용들이 거짓되며, 아담과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기적들도 없는 일이며, 예언들은 그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씌어진 것이고,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도 전설에 불과하며 예수님의 뼈가 어느 고장의 무덤에 묻혀 있다든지, 사도들의 서신도 위조된 것이며

계시록은 어느 미친 사람이 썼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신성한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워온 것이며 그들의 생활환경인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고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위한다면 얼마나 위하겠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인지는 모르나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하교회의 성도들, 순교자들을 만나면 이상한 사람들을 본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의 일부만을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모든 것을 부정한 것과 같게 됩니다.

공산주의에 대하여는 그릇된 견해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면에서 옳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성실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들이 다 틀렸을지라도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때 공산당과 결탁하여 교민들과 엮서는 한 동방정교 대주교와 같이 있었습니다. 하루 저녁 나는 그의 두 손을 꼭잡고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 받아주십니다. 주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찬송가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
니다.

나는 무신론 논문을 써서 빨리 석방되길 원했던 한 동방정교 사제와 같은 감방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와 애

기를 나누었으며 그는 그 론문들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그는 영원히 풀려나질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의 부담을 안기고 싶지 않습니다.

* * *

나에게 또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문헌작가 글리우디 몬테피오르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룰범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욕한 것은 원쑤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하신 그분의 명령과 모순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은퇴한 런던 성 바울교회의 목사, 마태박사는 이는 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말이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몬테피오르의 관점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공산주의자들과 교회 안의 친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번 이런 말을 들어 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잊고 주님의 일에만 힘을 쓰시다!”

나는 나치스의 고문을 당했던 한 기독교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좋은데 공산당의 말은 꺼내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럼, 나치스를 반대하여 싸웠던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앉아서 성경만 읽고 나치스

의 폭행을 보고만 있었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나 히틀러는 6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반대할 수 있는 거지요.”

“공산주의자들은 삼천만명의 소련인들과 수백만의 중국 사람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유대인들도 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살해되었을 때만 반대하고 소련 사람들이 살해되면 보고만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는 “이전 영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하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나는 나치스 시대에도 맞아 보았고 공산당에게도 맞았습니다. 이는 똑같이 아픈 것이며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뿐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특정된 한가지 문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오늘날에 있어서 기독교의 제일 크고 위험한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단합하여 이를 대적해야 합니다.

내가 한마디만 더 말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산당의 목표는 우리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소금이나 광물질이 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들은 또한 모든 것을 유물론의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군중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신약성경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군대”라고 한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개인 **인격**은 여시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들어 왔습니다. 보위원들은 “아! 너 온종일 개인주의만 부르짖고 왜 집단주의를 멸시하는거야”라고 고함쳤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 각자가 인격체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종교”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종교는 공산주의와 모순될 뿐아니라 적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방침은 신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 대중을 영원히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함으로 종교에 큰 타격을 안기는 것이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의 말을 빌어 해답을 드린다면 “...공산주의는 종교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길 것이다”입니다.

제 5 장

정복할 수 없는, 널리 퍼지는
지하교회

나는 지하교회의 정황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하교회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의 국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인들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조금이나마 주어졌지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모든 선전기구—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영화, 가극, 신문 출판물—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도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를 사랑하는 이들과 비교할 때 지하교회의 세력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소련 지하교회의 목사님들은 모두 신학훈련을 받지 못했으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다 읽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성직 안수를 받은 분이 몇명이나 있을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한 젊은 소련 지하교회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안수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국영교회의 감독들은 당에서 승인한 사람들에게만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명의 젊은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감독

목사님의 묘지를 찾아가 우리들 중에 두 사람을 그분의 묘지의 비석에 손을 얹고 나머지 사람들은 묘지에 둘러 서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수하시길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못박히신 손이 우리 머리에 안수하셨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 젊은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안수를 받고 신학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습니다. 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하였던 사람들이 글을 알아서, 아니면 신학교를 다녀서였겠습니까? 어디서 성경을 구입하여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하교회는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림 속에 모여 레배를 드릴 때 머리를 들어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세상 그 어디에 이 보다 더 멋진 교회당이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수림 속의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소리를 풍금소리로, 꽃들의 향기를 우리의 분향으로, 만약 우리들 가운데 갓 출옥된 성도가 있으면 그의 람루한 옷은 목사님들의 레복보다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달과 못별들을 촛불 삼아 비밀 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나는 무슨 말로 이 아름다움을 다 형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밀 레배 후에는 감옥에 잡혀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족쇄에 묶

기곤 합니다.

감옥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마음 속에는 평안과 회락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때의 느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지하교회와 감옥에서 정말 기쁨에 넘쳐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교회는 핍박을 받지만 반면에 보위부와 정부 요원들 중에도 믿음의 동지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지하교회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쏘련의 신문들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표면적인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속수무책임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정부기관과 선전기관, 그리고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겉으로는 공산당원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이며 지하교회의 교인들임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레로 당 선전부에서 일하는 한 젊은 여성은 퇴근하여 저녁을 먹은 후 남편과 함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을 초대하여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진행하여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공산국가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면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영교회에 나가면 감시받고 순수한 복음을 듣지 못하므로 자신들의 직위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쏘련의 교인들은 유아세례에 대하여, 교황 무오설에 대하여,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듣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풀지도 못하며 또 그것을 인해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

러나 그들이 무신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는 궁금하였습니다.

그들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수성찬을 차린 연회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음식들이 만든이가 없이 그냥 차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자연은 우리들을 위해 마련된 잔치 상입니다. 우리는 도마도, 복숭아, 사과 그리고 우유와 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느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 준비하셨겠습니까? 자연은 의식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의식없는 자연이 어떻게 우리의 수요에 따라 이 모든 것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관해서도 그들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얘기 나누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태아에게 앞으로 너는 지금보다 더 멋있고 긴 생명을 누려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태아의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우리가 무신론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해줄 때와 같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어머니 배 속의 생활만 알고 그 외의 것은 종교적인 미신행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태아가 생각할 줄 안다면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팔이 자라지만 펴지도 못하는 팔을 나는 쓸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자라나지? 아마 앞으로 내가 일할 때 쓰게 되겠지. 다리는 자라는데 역시 구부려야만 하니, 아마 앞으로 더 큰 세계에서 걸어다닐 때 쓰겠지. 두 눈 또한 그렇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쓸모 없지만 빛의 세계에서 보게 되겠지.’” 태아도 자신의 변화를 보고,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바깥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젊어서는 정열에 넘쳐 있지만 그것

을 바로 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는 죽음에 립박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필요 이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하며 왜 태아에게 팔과 다리와 눈이 자랍니다? 그것은 앞으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를 위하여 경험을 쌓고 지식과 지혜를 배워가며 이 세상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일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공산당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지하교회 성도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호주머니에 무슨 신문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 아니면 어제 뿌라우다지 입니까? 어디 좀 봅시다. 아! 1964년 1월 4일, 1964년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도 없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요? 당신들은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시간을 그분의 생일로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분이 오시기 이전부터 있었으나 그분이 오심으로 옛것은 의미가 없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들의 신문 자체가 예수님은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목사들은 교인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한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철의 장막 속의 일꾼들은 정식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을 진리의 터에 굳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공산세계 속의 믿음의 주역이지만 국영교회와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영교회의 많

은 목사님들이 공산당의 감시를 벗어나 지하교회 사업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영교회가 공산당과 손을 잡은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는 일찍이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후 셰르기우스 주교가 이끌었던 “생명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셰르기우스 주교의 한 협력자는 “맑스주의는 무신론자의 글들로 쓰여진 복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련 뿐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 안에는 셰르기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헝그리아의 발로프 주교는 몇명의 목사들과 협력하여 공산당을 도와 그들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로무니아에는 동방 정교주교인 불두체아가 공산당을 도와 정권을 잡게 하였습니다. 그는 과소의 당원이기도 하였으므로 공산당 앞에서 옛날에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더욱 열성이었습니다.

소련의 당비서인 비윈스끼가 로무니아 공산당 정부 창립회에서 “이 정부는 앞으로 이 땅에 락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므로 당신들은 천당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불두체아는 옆에서 웃음으로 자신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소련의 니코데모 주교가 KGB의 일원임을 서방으로 탈출한 KGB 소위였던 드리아빈은 증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거의 모든 교단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무니아의 침례교는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소련의 침례교도 똑같습니다.

로무니아 안식교의 주석이었던 타치씨는 자기가 공산당이 집권한 초기에서부터 보위부의 첩자였었다고 나에게 실토했습니다.

공산당은 대부분의 교회를 철폐하였으나 교인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므로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또 외부의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일부 교회들을 그대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국영교회의 목사로서 일하면서 교인들의 동향을 보고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서방 사람들로써는 이 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런 국영교회들로 대체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영교회까지도 점점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소련에 많아야 5,6천개의 교회가 남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같은 인구의 미국에는 30만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마저도 우리가 연상하는 그런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 작은 방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본 “꼭찬” 교회는 모스크바에 유일한 선전용 교회임에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 소련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백만의 령혼이 하나의 교회 밖에 없는 비극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국영교회들은 인구의 20%의 지역에만 집결되어 있고 나머지 80% 주민들은 지하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더욱 지하활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폐쇄된 국영교회들 장소에서 반종교단체들의 회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어떻게 무신론적 문서를 역이용하는가?

지하교회는 정부의 방해를 역이용하였습니다. 우선 그들은 반기독교 선전물들을 널리 리용하였습니다(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가 까마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무신론자들은 온갖 수완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성경의 말씀들을 비판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우스운 성경”과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성경”이라는 책들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들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 성경은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였으나 내용들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성경구절들로 가득찬 책자들을 몇 백만부씩 출판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성경은 성경인 것입니다.

과거의 종교재판소에서 진정한 성도들을 이단자들로 몰아 불태워 죽였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성도들은 지옥불과 온갖 마귀들이 그려진 괴상한 옷들을 입고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성도의 신분은 바뀔 수 없듯이 사단이 아무리 성경을 헐뜯어도 진리의 말씀은 말살하지 못합니다.

출판사는 성경구절들을 인용한 반 기독교서적들을 재출판해달라는 편지들을 받고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편지들이 성경을 구할 뜻이 있는 지하교회들에서 보내온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반 기독교 회의들도 역이용하였습니다. 한번은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요술사에 불과하다며 이 점에 대하여 증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물주전자에 시약을 넣어 물을 빨간색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며 예수도 팔소매 속에 이런 시약을 감추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고 말하고 자기는 예수보다 더 멋있게 할 수 있다며 다른 시약을 넣어 빨강게 변한 물을 다시 흰색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때 한 기독교인이 일어나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 선생은 우리들에게 멋진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그 ‘술’을 마셔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수는 “시약은 독성이 있으므로 그 물은 마실 수 없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과 예수와의 큰 차이입니다. 그분은 2천년 동안 자신이 만든 술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셨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해독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교인은 구속되었으나 이 소식은 널리 퍼져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린 다윗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가 우리의 편이므로 우리는 힘센 골리앗을 타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강사가 어느 한 공장에 가서 무신론에 관해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의 모든 로동자들이 강제로 참가해야 했습니다. 그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무신론과 예수를 믿는 어리석음에 관한 론증을 들었습니다. 강연자는 계속하여 이 세상에는 령

적 세계와 하나님도, 예수도 없으며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닌 물질이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는 여러번 세계는 물질로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할 수 있는가”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허락을 받고 지기가 앉았던 접의자를 들어 내던졌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의자를 바라 보다가 주석단으로 올라가 강연자의 뺨을 쳤습니다. 그러자 강연자는 화가나서 욕을 퍼부으며 동료들을 불러 그 기독교인을 잡았습니다.

그는 “너 리유도 없이 감히 나를 때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도끼에 제 발등 찍는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바로 전에 세계 만물은 물질로만 되었다고 하기에 내가 걸상을 들어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자는 물질이기에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뺨을 후려쳤을 때 당신은 걸상과는 달리 성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교수동무, 당신의 연설은 틀렸습니다. 인간은 물질 이상이며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완벽하게, 준비한 무신론의 그릇됨을 증명하였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치 지도원은 비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그 어리석은 기독교를 믿을꺼요?”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를 한탄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이 보았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후회하며 님스나 레닌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있는 대답입니다.”

나는 계속하여 “한 설계자가 철교를 설계하여 건설하였다고 합시다. 한 마리의 고양이가 다리 위로 지나갔다고 하여 이 다리가 튼튼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련차가 지나가야 우리는 이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결코 무신론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무신론은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레닌이 쓴 책들을 보여주며 그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태의 발전을 조용히 인내성있게 기다리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온종일 불안과 공포 속에서 헤매이며 기를 쓰고 종교를 반대해 나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 어거스틴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하교회가 사유세계의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감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반인간적인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마음 속으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 되었음을 알고 있으며 모순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을 신봉하므로 인간은 화학성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죽으면 다시 소금이나 기타 다른 원소로 될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래의 물음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있는데 ‘화학성분’이 어떻게 리상이 있으며 ‘광물’이 어떻게 다른 것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하여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합니다. 히틀러 정권의 통치자들이 폐망할 때 자신들이 지은 죄행을 깨닫고 회의하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했습니다.

사회주의 나라들에는 상당수의 알콜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공산당의 폭정 하에서 보다 자유스러운 생활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쏘련 사람들은 마음이 넓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인간성을 떠난 천박한 사상이므로 더 의미있는 인생을 찾을 길 없는 그들은 술로 그 공허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술은 잠시 동안만 그들로 하여금 불만들을 잊게 하지만 진리는 깨닫는 자에게 영원한 자유를 줍니다.

쏘련군이 로무니아를 강점하고 있을 때 나는 부꾸레슈띠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나도 모르게 안해와 함께 한 선술

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집에 들어서자 나는 한 쏨런 군관이 총으로 사람들을 협박하며 술을 내놓으라고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군관은 이미 취했으므로 접대원들이 술을 더 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다가가 술을 더 드리라고 말하고 내가 그 군관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병의 술이 올라왔습니다. 그 군관은 례의있게 세잔의 술을 부어놓고 또 그 술들을 다 마셨습니다.

나와 안해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이 취해 있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자신을 소개했으므로 나도 내 신분을 밝히겠소. 나는 스딸린이 핍박을 시작할 때 초기에 믿음을 저버린 신부 중의 한 사람이오. 나는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내가 신부로서 속이는 자였으며 다른 목사들도 다 나와 같다고 강연했습니다. 나는 열성자였으므로 보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두 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나는 피로워서 그 일들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또 마셨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자살을 합니다. 위대한 시인인 에쎄넨과 마이야콥스끼 그리고 유명한 작가인 파데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행복”이라는 소설을 (진정한 행복은 공산주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데 있다는 내용을 담은) 완성한 후 (너무나도 행복했기에) 바로 총으로 자살하였습니다.

다.

이런 큰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편히 살아가겠습니까?

짜리로씨아 시대에 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조패와 톰킨도 공산주의의 현실을 체험하고는 실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령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같이 싸웠던 옛 동지들마저 살해한 후 스탈린은 늘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나머지 그는 은행의 금고와 같이 잠굴 수 있는 여덟개의 침실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누구도 그가 어느 방에서 자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그의 앞에서 그의 음식을 다른 사람이 검식하기 전에는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어느 누구도(심지어 수령까지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공산주의를 물리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산주의의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에게까지도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노예되어 사는 우리 인민들의 가장 깊은 요구를 대변합니다. 그 지하교회를 도와 주십시오.

지하교회의 주된 특징은 진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지하교회에 관한 책에 다음의 글을 적었습니다.

한 소련 군관이 웅그리아의 한 목사님을 찾아가 단독적으로 만날 수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 군관은 젊고 성격이 급했으며 정복자로서의 지위를 매우 의식하였습니다. 그가 작은 방으로 안내되고 문이 닫히자 벽에 걸린 십자가를 향해 머리를 흔들며 암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가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당신들 목사들은 이것을 리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켜 부자들의 리익을 지켜주고 있소. 지금 우리 둘 밖에 없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다고 승인하십시오.”

그 목사님은 웃으며 “젊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관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속이려 하지 마오. 나, 롱담을 좋아하지 않으니 정색해 주시오” 그러면서 그는 총을 빼들어 목사님의 몸에 갖다 댔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내게 승인하지 아니하면 쏘겟소.”

“나는 승인할 수 없소. 우리의 주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군관은 권총을 버리고 목사님을 포옹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을 보지 못했으므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믿음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믿음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와같은 다른 실례를 알고 있습니다. 쏘련군이 로 무니아를 강점하고 있을 때 무장한 두 쏘련 군인이 교회에 들어와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죽여버릴테다. 지금이라도 포기할 자는 오른쪽으로 나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러명이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더러 빨리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나가자 두 군인은 나머지 기독교인들과 뜨겁게 포옹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진정한 기독교인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지금도 철의 장막 속에서 복음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성도들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세상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집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과 지하교회 사업을 할 때 이웃들이 듣고 보위부에 밀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서방에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발언할 수 없고, 입을 가지고도 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귀중히 여기며 신앙에 관한 문제들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물질로 공산주의 나라들에서 고난받는 믿

음의 지하교회를 적극 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우리는 반드시 공산주의자들을 감화하여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령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수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독일군의 포로로 잡힌 공산주의자들은 나에게 자기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면 기도를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심지어 많은 공산당 간부들이 “예수님, 예수님”을 외치며 숨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문화 유산들도 우리들의 전도사업에 큰 도움이 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련 정부는 근대의 기독교 문학서적들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톨스또이와 도스또예브스끼와 같은 작가들의 글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독에는 괴테, 뿔스카에는 시엔키에뷔쯔, 로무니아에는 위대한 싸도부기누가 있습니다. 로무니아 정부는 그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책을 “성자들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출판하였지만 그 속에 담긴 성도들의 삶의 실례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을 고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들의 미술작품들은 예수님을 주제로 그려졌습니다. 이들의 복사품들이 많이 돌고 있지만 정부는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마음 속의 령적 갈망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의 물음에 대한 반박보다는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신론 강연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가 강연을 실수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기도한 맑스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하교회 모임에 참가한 공산당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적발되자 그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용기가 없어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하지 못함을 인해 눈물 흘리며 후회합니다. 그들도 인간들입니다.

일단 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접했다면 - 설사 그 믿음이 아주 기초적이라 할지라도 - 그 믿음은 발전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교회가 승리함을 여러번 보아 왔으므로 믿음이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은 철의 장막 속의 지하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마음을 가진 자라면 지하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하셨지 철의 장막에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앞에 맡겨진 대사명을 안고 철의 장막을 넘어 공산치하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하교회를 통해 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하교회의 세 부류의 사람들:

첫번째 -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쫓겨난 사역자들

지하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는 수천수만의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아 교회에서 쫓겨난 사역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몇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였으며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석방되면 바로 비밀리에 지하교회에서 주의 일을 맡아 합니다. 비록 공산당 정부가 그들의 교회를 몰수하거나 자기들이 “믿음직한” 목사들로 바꾸었지만 그들은 이전보다 더 유력하게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리지 않고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은 고문과 다시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중하는 “산 순교자들”입니다.

두번째 - 성도들

지하교회의 둘째 부류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소련이나 중국에는 유명무실한 자나, 이름만 걸고 있는 자나, 미적지근한 기독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댓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핍박은 더 좋은 기독교인 - 증거하는 기독교인, 영혼들을 생취하는 기독교인 - 들을 만듭니다. 이들은 자유 세계에서는 보기 힘든 열성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자기 생활 속에서 주님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붉은 별(소련 룩군에서 출판하는 신문)은 소련의 기독교인들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습니다.

“예수의 숭배자들은 욕심많은 손을 아무데나 뻗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사실상 기독교인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빛을 내고 있으므로 그들은 이웃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범 주민들인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앓아서 어린애들을 돌보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찾아가 애들을 돌봐주며, 어느 집에 세대주가 앓아서 장작을 패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대신 해줍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못사람들은 이들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보았기에 듣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허가를 받은 목사만이 발언권이 있으므로 수백만의 열성적인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예수님을 전하여 령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신문들은 기독교인 고기 판매원들이 포장지 속에 복음 책자들을 넣어 분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출판물들도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기독교인들이 저녁늦게 출판에 들어가 몇 천부의 기독교 서적들을 인쇄하여 놓고 날 밝기 전에 다시 정돈하여 자리를 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기독교인 어린이들이 복음서들을 받아 다시 펼기하여 학교 옷걸이에 걸려진 선생님들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힘있고 효과적인 령혼 구원자들입니까?

쿠바 혁명이 일어난 후 진정한 목사님들은 잡히고 고문당하고 있으며 그 대신에 공산당 “목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날에 쿠바에서 일을 했던 선교사들은 지금 평신도들로 지하교회가 꾸려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진정한 헌신적인 기독교인들을 고문으로써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세번째 - 더이상 침묵하지 않을 목사들

세번째 지하교회의 생동하는 부분은 공식적인 그러나 억눌림 당하고 침묵을 지킨 “교회”의 많은 수의 신실한 목사님들입니다.

지하교회는 국영교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그리아와 같은 많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국영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비밀리 지하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두 사이에 서로 얽히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 목사님들은 그들의 작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들, 유년주일학교나 청소년 모임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심지어는 교인중 병이 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집에 심방을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규율에 따라 모든 면에서 울타리를 쳐야 하므로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의미가 전혀 없는 교회의 모습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들은 “종교의 자유”를 비웃는 여러가지 제한된 체제에서 용기있게 공산주의자들의 제한성을 벗어난 비밀스러운 일들을 수행하므로 그들의 자유를 잃어버릴 위협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목사님들은 비밀스럽게 청소년들과 아동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래 기독교신자의 집에서나 지하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무도 모르게 기독교 서적들을 받아서 그들 주위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에게 분포하는 일도 감당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비밀사역을 감당하므로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내려놓을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는 듯 보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위험한 사역을 몰래 위험을 무릎쓰고 감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중 많은 목사님들이 최근에 발각되어 러시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하교회의 활력있는 한 부분들입니다.

이전날의 사역자들, 지금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공산당의 고문을 받고 있는 성도들, 정부의 허락 이외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 이 세 힘이 모여 지하교회를 형성합니다. 이 지하교회는 공산주의가 없어질 때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나라들에 자주 다니며 또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는 지하교회를 지금껏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교육을 받지 못한 중앙 아프리카의 부족들을 방문하고 돌아와 말하기를 “나는 그들에게 산문시를 아느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다같이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인즉, 그들은 다 산문을 쓰고 있으나 그것이 “산문시”라고 부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종교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유태인, 이스라엘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 형제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루터 당시의 지지자들 역시 자기들이 “루터파”라는 것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 말을 아주 반대했었습니다.

“지하교회”라는 단어는 공산주의자들과 서방의 동구권 나라들의 종교정황을 주시하는 연구원들에 의해 불려졌습니다. 지하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을 기독교인,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하 활동을 인도하고, 비밀리에 집회하고 비밀리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므로 혹 참가했던 외국인들은 지하교회를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서방에서 여러해 동안 다니면서도 소련의 간첩들을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의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 나는 소련 신문들에 실린 글들을 인용하여 지하교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입증하려 합니다.

제 6 장

어떻게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패배시키는가?

나는 우리가 어떻게 비밀리에 복음을 쏘련 군대와 로무니아 공산주의자들에게 전하였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공산주의자들과 공산 통치하에 억눌려 사는 인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적극 지지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나의 도전이 현실에 어긋나거나 실현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 안에 지금도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지난 반세기의 혁명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공산주의를 이겼습니다. 쏘련의 신문에는 지하교회에 관한 소식들을 많이 기재하였습니다. 지하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세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공개적인 활동으로 넘어가 공산주의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여러 방면의 다른 소식들을 종합하여 쏘련의 보도가 진짜라는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교회는 대부분이 얼음산처럼 감추어져 있고 아주 적은 부분만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래의 글들은 지하교회에 관한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빙산의 일각

1966년 11월 7일 쏘련 수후미에 있는 지하교회는 공개적인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도시에서 온 수많은 성도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회 후 47명의 청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흑해 해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광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시대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50년간 공산당의 독재 후 성경을 비롯하여 기독교 서적들과 신학원은 모두 몰수당하였으므로 지하교회의 목사님들은 신학원에서 훈련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집사였던 빌립도 비록 신학자가 아니었지만 왕의 내시에게 한 시간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내시는 “지금 바로 여기에 물이 있는데 그 누가 내가 침례받는 것을 가로막겠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빌립은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하며 즉시 그 내시와 물에 들어가 침례를 주었습니다(사도행전 8장 36~38절에서 찾을 수 있음).

1966년 8월 23일의 “교사잡지”가 실은 소식에 의하면 돈강 류역의 로스토프에서 침례교 사람들이 공산당이 임명한 소위 “교회 지도자”들의 집회를 반대하여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하교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때면 자신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국제 노동절을 계기로 정부의 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나섰습니다. 5월 1일은 공산당 국가에 있어서 큰 명절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경축행사에 강제로 참가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1,500명의 쏘련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용감하게 거리에 나섰

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자유를 박탈당하고 굶주림과 고문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쏘련의 기독교인들은 바르나울시의 복음(복음전도파) 전도협회 성도들이 발행하는 “비밀 선포”라는 책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클룬다 마을의 우마라 자매가 당한 비참한 사실을 실었습니다. 이 자매의 남편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업하다가 4명의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자매가 남편의 시체를 받았을 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두 손목에 남은 족쇄의 흔적 자리, 손과 발에 남은 불로 지진 상처, 아랫 배 부분의 칼자리,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퉁퉁 부어있는 시체만 보더라도 공산당의 악독스러운 고문이 사람을 어떤 지경까지 만드느냐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형제는 결국 주님을 믿은 지 3개월만에 주님의 사업에 자기의 귀중한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쳤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만은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무서워 마십시오”라는 힘찬 구호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로스토프 시의 시위에 참가한 성도들은 자기들도 희생된 그 형제와 같은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친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시위에 참가한 성도들은 어느 한 작은 집을 에워싸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거리는 온통 사람들로 붐비었고 근처의

지붕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 앉듯이 말입니다.

집회 후 8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다수가 젊은이들이며 그중 23명은 사회주의 청년동맹 열성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중심거리를 지나 침례식이 진행될 돈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을 실은 장갑차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강가를 포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가려고 하였습니다(물론 그들은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곧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그날 집회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성도들은 경찰들이 지도자들을 잡아가지 못하게 서로 어깨걸고 에워 쌓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교사잡지”는 또한 로스토프 시의 비밀 침례교 조직들이 지하 인쇄소를 가지고 있다고 실었습니다(쏘련에서 “침례교”란 복음 전도파와 오순절파의 성도들을 말함). 성도들은 책이나 잡지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를 끝까지 버리지 말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중 한 문장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장례식에 참가할 때 자식들을 데려가 그들로 하여금 인생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므로 염려할 것이란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나도 이 말에 찬성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성경의 진리로 자식들을 가르쳐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무신론 사상에 물들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사잡지”는 “왜 교원들은 학생들의 가정을 간섭하기를 무서워하여 학생들이 종교사상에 물들게 하는

가?”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침례를 주다가 경찰에서 잡히는 때가 많았습니다. “교사잡지”는 그들이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형용하였습니다.

“젊은 성도들이 증인으로 재판에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재판관을 무시하고 완강한 태도로 그들과 맞섰다. 관중석의 어떤 젊은 녀성들은 피고들을 대견스러운 눈길로 보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쏘아보는 정도이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쏘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앞에서 종교 자유를 실시할 것을 청원하여 나섰습니다. 쏘련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침례회 동맹”은 변절자 까레프가 우두머리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오늘의 쏘련 생활”(1963년 제 6기)이라는 잡지에서 살인마인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찬양하였으며 쏘련의 “자유”에 대하여 거짓 선전을 하였습니다. 쏘련의 복음 전도파인 침례교는 “침례회 동맹”을 반대하는 조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조직에서 비밀 통로를 통해 얻어낸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대담한 공개활동을 실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이 내용을 실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긴급통지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긴급히 알려줄 소식은 5백명의 복음파 침례교의 대표들이 1966년 5월 16일 모스크바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 청사 앞에서 쏘련 공산당 총비서 브레즈네프에게 쓴 청원서를 받아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통지에서는 500명의 성도들이 온종일 청사 앞에 서서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첫 반공시위 투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도들은 스프로가노프라는 동지가 청원서를 브레즈네프에게 전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성도들에게 위협까지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두번째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밤중에 화물 자동차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청사 앞에서 밤을 지새는 500명의 성도들에게 오물과 흙을 마구 퍼부으며 모욕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위협은 더욱 심해졌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정부는 직위가 낮은 간부 등을 만나게 하겠다는 제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전에도 정부 인물들을 만나려 들어갈 때면 증인이 없다는 구실로 먼저 못매를 안긴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일제히 거절하고 브레즈네프가 나와 자기들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은 끝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오후 1시 45분 28대의 군용차들이 들이닥쳐 성도들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손에 손잡고 한덩이가 되어 힘차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때는 십자가를 지는 그때이다." 경찰들은 남녀로소 관계없이 끌어내어 얼굴이며 머리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짓밟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매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또 어떤 성도들은 경찰에게 머리카락이 질질끌려 잡혀갔습니다.

성도들로 꽉찬 자동차는 어데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차안에서도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당시 거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잡혀간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리라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후에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500명 모두 체포되고 고문을 당한 후 빈스, 호테프 형제(그리스도 양무리의 참 목자들)들은 용기내어 당중앙위원회를 찾아가 붙잡힌 성도들의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간 후 바로 그 지역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와왔다.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셨던 그때를 련상케 하였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곧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이들은 지금 레프트로브스까 감옥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비록 공산당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곧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의 경과를 인쇄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빌립보서 1장 29절). “박해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인용하여 성도들을 고무,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하교회들은 로스토프와 모스크바 등 전국 각지에서 무신론이 청년들에게 주는 해독성과, 양의 가죽을 쓰고 정부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들을 반대하여 공개적인 투

쟁을 벌였습니다.

지하교회가 작성한 비밀통지에는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의 지시를 받는 교회를 세울 정도까지 미쳐 날뛰고 있다”(1966년 10월 4일 프라우다 우크라이나 신문에 기재).

보스토카 프라우다 신문은 아메리카의 복음 방송을 록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준 것이 죄가 되어 알렉세이·네베로프, 보리스 가마쇼프, 아센 류보프 형제들이 재판을 받은 소식을 실었습니다. 3명의 형제들의 또 하나 죄명은 “들놀이”, “예술 토론회”를 조직한다는 구실 아래 복음 전도집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하교회는 또한 당시 로마제국 시대의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썼던 것입니다.

1966년 9월 15일 몰다비아 쏘베르 일보는 지하교회들이 작은 복음지들을 인쇄하여 “불법”적으로 공중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고 있다고 지껄였습니다. 또 신문은 레니에서 키씨나우로 가는 열차에서 3명의 형제들과 4명의 자매들이 “우리의 청춘을 주님께 바치세!”라는 찬송가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사를 실은 신문기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아주 놀란 것은 거리나 정거장이나 열차에서나 뺨스에서 심지어는 국립학교 그 어디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복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소련의 지하교회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찬송가를 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몇명의 성도들은 재판이 끝난 후 곧 무릎꿇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의탁

합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힘차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5월 1일 예배당이 없는 코프섹과 자하로브카 마을의 성도들은 수립 속에서 비밀리에 집회를 가졌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생일 연회를 차린다는 구실 밑에 복음집회를 가지곤 합니다(많은 기독교 가정들에도 4,5명의 식구들 밖에 없지만 이런 생일을 한 해에 35번씩이나 새곤합니다).

그 어느 감옥과 무서운 고문도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웅적 기개는 꺾지 못합니다.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성도들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1966년 10월 4일 우크라이나 프라우다 신문은 소련 지하교회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프로코피에프 형제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세번이나 갇혔지만 갓 석방되자 일요일 비밀집회를 지도하다 다시 잡혀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한편의 비밀 성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정부교회는 인간이 만든 법률(즉 사회주의법)에 순종하므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소련의 한 형제가 감옥에서 고문 받는다고 할 때 그 감옥은 절대로 서방나라의 감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련의 감옥은 굶주림, 무서운 고문과 세뇌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1966년 제 9기의 “과학과 종교” 잡지는 기독교인들이 일반 잡지의 표지로 위장하고 그 속에 복음전도지를 끼워 넣어 전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주는 책이 레오, 돌스또이의 “안나, 카레닌나”와 같은 책이

지만 실제로 책속의 내용은 성경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국제적 공산주의”의 곡이지만 가사는 다 주님을 찬송하는 글이었습니다(1966년 6월 30일 카작스탄 프라우다 신문).

클룬다(씨비리아)에서 인쇄한 성도들의 비밀편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교의 정부측 지도자들은 이전의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팔아먹은 것처럼 교회와 충실한 주님의 종들에게 큰 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은 계속 주님의 사업을 활발히 하여 나갈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업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1966년 4월 27일 바꾸로 동자일보는 주님을 영접한 여사로청원인 타니아가 쓴 편지가 정부의 손에 들어간 사실과 그 편지 내용을 신문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나디아 삼촌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적에 너무도 죄 많고 보잘것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삼촌 어머니가 ‘너는 너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 대하라. 너희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여 주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라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편지가 경찰에 들어간 후 이 자매를 비롯한 젊은 공산주의자들을 변화시킨 페페르 세레브레니코프 형제는 곧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이 형제의 설교의 한 부분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구세주를 견결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유일한 규범으로 삼으며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승인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속히 사람들을, 특히 청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님의 뜻에 뭉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쏘련법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제는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법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독한 무신론 독재 통치에 대한 아주 정당한 대답이었습니다.

또한 신문은 침례를 받은 젊은 청년남녀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기 원수들을 사랑하자는 어리석은 설교를 하고 있다고 지껄였습니다.

바깥스끼 라브치 신문은 많은 사로청원들이 실지로는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능력 없고 정부가 무관심했으면 목사들이 기회를 노려 우리 앞에서 청소년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가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1966년 6월 30일의 코자크스탄스카이어 프라우다 신문은 지덕체를 다 갖춘 우수한 남학생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1966년 1월 7일 키르기즈스카이어 프라우다 신문은 지하교회가 이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보낸 뼈라문을 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우리 자녀들이 요람 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자식들을 이 세상의 죄악에서 건져냅시다.” 기독교화된 가정교육이 젊은이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위의 공산당 신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체리아빈스크시의 어느 한 신문은 녀사로청원이었던 니나가 비밀 지하교회 집회에 참가한 후 기독교인이 된 경과를 실었습니다.

1966년 제 9기의 “쏘련 정의”잡지는 지하교회 집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임은 밤 12시에 열리는데 각 지역에서 온 성도들은 들키지 않게 비밀리에 행동합니다. 어둠컴컴하고 천정이 낮은 방안은 성도들로 가득차 무릎꿇고 기도할 자리조차 없으며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가스불이 자주 꺼집니다. 방안에 앉은 성도들의 얼굴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하여 한 성도는 반드시 거리에서 망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집회에서 나나는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신념과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크나큰 믿음이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나도 주님을 크게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전 사로청의 친구들은 길에서 저를 보고도 본체 안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기독교인”이라고 고향지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면 마치도 저의 뺨을 치는 듯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쩐다고 해도 저는 그들과 상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매처럼 수많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결심하고 있습니다.

1969년 8월 18일 카자키스탄 프라우다 신문은 클라센, 본다르와 텔레긴 형제들이 어린이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죄”로 재판관을 받은 내용을 실었습니다.

1967년 6월 15일 키르기지아 쏘메트 일보는 고집스러운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너무 누리다보니 인자한 정부로 하여

금 부득불 폭력을 가하게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할 수 없이 15대의 인쇄기와 6대의 책을 묶는 기계를 갖춘 “불법” 기독교 서적 인쇄소를 세운 한 조직 여성들을 체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968년 2월 21일 프라우다 신문은 수천명의 여성들이 성경구절과 기도문이 씌어져 있는 허리띠와 머리띠를 매고 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저의 생각에도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이 새로운 방법을 발기한 사람은 이전에 비밀경찰이었던 기독교인 스타씨우크 형제였습니다. 결국 그도 체포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법정에서 하는 답변은 다 하나님이가 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번은 어느 재판관이 한 자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금지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그 자매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한번은 재판관이 피고인! 녀학생에게 이렇게 조롱조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믿는 종교는 완전히 비과학적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자매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래 재판관 동지는 뉴턴과 아인슈타인보다 과학에 대해 더 잘 야십니까? 그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는 중학교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아인슈타인 우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직, 단지 구약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보고도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를 세상의 최악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매 성도들에게는 이 진정한 종교

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신성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우리 나라의 위대한 생리학자 파브로프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칼 맑스까지도 자기의 '자본론' 서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죄에 손상된 인간의 본성을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이상적인 종교입니다.' 나의 본성도 이내 죄에 타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칼 맑스가 가르친 대로 기독교인이 되어 인간성을 되찾고자 하는데 맑스주의자들인 당신들이 어떻게 내가 '죄'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판관은 그 자리에서 병어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비과학적이라는데 대해 어느 다른 한 성도는 법정에서 이렇게 반박하였습니다. "재판관 어른, 나는 당신이 마취약과 다른 의약을 많이 발명한 심프슨과 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프슨에게 일생 중 당신의 제일 큰 발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일생에서 제일 큰 발명은 마취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아무때건 피흘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희생정신과 간증들은 주님을 전하는 사업에서 그대로 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아프리카에서 전도사업을 했던 유명한 전도자 슈바이처가 말한 것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교통"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루어진 교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간은 죄에서 구속되었

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결코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밀 통로를 통해 우리 손에 닿은 지하교회의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고 다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로 성도들은 고문당할 때나 법정에서 질문받을 때나 누가 자기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1966년 1월 15일의 동방진리 신문은 마리아 세브치우크 자매가 누구한테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가라고 물은 재판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누가 너희들의 지도자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지도자가 따로 없다”라고 씩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 어린이들에게 “누가 너희들더러 소년단 조직에서 나오고 붉은 넥타이를 매고 다니지 말라고 지시했는가?”고 물으면 “우리는 우리가 자원적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당돌하게 대답합니다.

“얼음산”의 꼭대기 부분이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은폐상태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 침례를 받곤 합니다. 어떤 때 강가에 나가 침례식을 치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례받는 사람이나 침례주는 사람이나 가면을 씩니다.

1964년 1월 30일 “교사잡지”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크

스킬 지역의 보로닌 마을에서 무신론 강연이 있었는데 강연자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들이댔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당신네 공산주의자들이 말끝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이 인자하여야 한다’ 하고 말만하는 도덕 규범들은 어디서 얻어왔는가?”고 물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규범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반대하는 성경에 이미 몇천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정확히 알려 주었습니다. 결국 강연자는 얼이 나간 사람처럼 대답은 못하고 뺨소니치고 말았습니다.

지하교회의 핍박이 커지다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으며 소련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정부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억압을 받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보편적으로 핍박의 중심대상은 지하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소련 신문들에는 대규모의 체포와 판결사건들이 끊이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82명의 기독교인들을 정신병원에 가두어두는,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24명의 성도들이 사망하였는데 정부는 사망원인을 “기도를 너무 오래함” 때문이라고 지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오래하여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당한 처지를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발각되면 아이들을 영원히 부모 곁에서 빼앗아가며 면회도 허락하지 않

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악랄한 핍박이었습니다. 소련은 유엔의 성명 “교육에서의 멸시 반대” 문건에 찬성을 한국 가입합니다. 이 성명에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종교와 도덕 교양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정부의 침례교 협회 변절자 카레프는 실지 소련에도 이런 자유가 있다고 거짓 선전을 했습니다. 세살난 아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소련의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하였는가를 봅시다.

1963년 6월 4일 소비에트 일보는 마킨코바 자매가 겪은 고통의 사실들을 실었습니다. 자매는 6명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그들이 소년단 넥타이를 매고 다니지 못하게 했다는 “죄”로 6명의 아이를 다 빼앗겼습니다. 이 자매는 지금 무신론 교육을 받고 있는 자식들의 일체 먹고 사는 비용을 다 부담하여야 하며 자식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매가 정부 앞에서 한 것은 한마디 “나는 오직 나의 신앙을 위하여 고통을 받겠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되신 기독교인 여러분! 이 자매의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교사잡지는 똑같은 불행이 이그나티 물린 부부에게도 일어났다고 썼습니다. 재판관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이때 아버지되시는 분이 “나는 나의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강제로 부모결을 떠나 국민학교에서 가르치는 무신론 사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아이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철의 장막 속의 성도들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 미풍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과 1주일동안 헤어져 있으면 소련의 형제들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련에서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부모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소련의 신문 보도에 의하면 1967년 3월 29일 모범 청년 신문에 씨취 자매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들 첼스라프를 교양하였다 하여 아들을 잡아간 내용을 실었습니다. 또한 1968년 1월 13일 쏘메르일보는 하바로브스크 시의 짜바니아 자매가 자기의 고아 손녀 타니아에게 “반자연적인 교육”을 주었다고 헤어지게 만든 사실을 실었습니다.

단지 개신교 지하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로씨아에 있는 동방정교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수백만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빵도, 십자가도, 거룩한 형상들도, 향기도, 촛대들도 없었으며 평신도들은 안수받은 한 사제도 함께 함이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제들은 사제복도, 성찬을 위한 빵도, 포도주도, 거룩한 기름도, 기도문이 적힌 책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와같은 것들이 없이도 그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므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 위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순전하고 영적인 각성을 주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깨달음이 로씨아에 있는 동방정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50여년간 통치하여 왔지만 소련의 방송과 신문에는 지하교회의 휘황찬란한 승리의 소식들로 가득찼습니다. 지하교회는 불타는 신념으로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이겨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 전도사업을 벌여 로무니아에 주둔한 소련 군인들 속에 그리고 소련 본토와 소속국가들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며 이미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주의 나라들이 주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억압을 받는 인민들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지원만 한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철의 장막 속의 지하교회가 흥성번영하는 그때에 가서 나의 이 말이 증명될 것입니다.

지금 소련과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지하교회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편지들은 소련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우리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 향기를 풍기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로 합시다.

제목 : 공산주의자였던 보리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나

아래의 세 편지는 보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 마리아 자매가 쓴 것입니다.

첫번째 편지:

...어느 한 사로청간부는 나와 각별하게 친한 사이였습니

다. 하루는 그 처녀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니를 모욕하고 핍박하는데 왜 언니는 이들 모두를 사랑합니까?” 나는 그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 뿐아니라 자기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라고 하셨단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녀도 전에는 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지만 나는 그를 위해 특별하게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이 처녀가 나에게 자기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가 물었을 때 나는 두팔 벌리고 그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지금도 저와 그 자매는 함께 앉아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합니다. 이 처녀가 바로 바리아 자매입니다. 이 자매를 위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같지만 실지 이들의 마음은 고민과 갈등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들은 한쪽으로는 주님을 찾기에 방황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무신론으로 자기들의 공허한 마음을 가리우려고 애씁니다.

주안에서
마리아.

두번째 편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기쁜 소식은 첫번째 편지에서 말했던 바리아 자매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은 후 그 자매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전에 무신론을 주장한 죄로 인하여 자신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어느 한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든지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옛식대로 공산주의 노래가 끝난 후(바리아는 부르지 않았다) 그는 씩씩하게 강단으로 나가 엄숙하고 간절히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수많은 동무들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이전에는 눈이 멀어 자기는 물론 동무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갈뻔 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다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회의장은 침묵이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아는 힘찬 목소리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 부끄럽지 않네.

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권능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후 바리아는 경찰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오늘 5월 9일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의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꼭 구원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로부터

세번째 편지:

어제 8월 2일 나는 사랑하는 바리아와 감옥에서 면회했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가슴에서는 피가 흐릅니다. 그는 이제야 19세인 어린 처녀일 뿐아니라 신앙 생활에서 볼 때 갓난 아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온 정성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믿은지 얼마 안되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행처를 알자 많은 물건을 보냈었습니다(감옥에서의 배고픔이란 어떻다는 것을 너

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얼마 밖에 받지 못합니다. 나는 어제 모진 고문과 시달림으로 더없이 여위고 창백한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유독 그의 두눈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천국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백절불굴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철창 너머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봐리아 너는 전에 네가 한 일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니?” “천만에요. 만일 이들이 나를 석방한다면 다시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리고 싶어요. 절대로 내가 고난당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의 마음에 회락을 주시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봐리아를 위해 간절히 잠간 기도합니다. -아멘-

봐리아는 씨비리아로 추방될 것입니다. 그의 몸에 걸친 옷 외에 그 나머지는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 자매에게는 친척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필수품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번에 보내온 돈은 이미 받았습시다. 만일 봐리아가 진짜 씨비리아로 가게 된다면 나는 이 돈을 꼭 그에게 쥐어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능력을 주시어 앞으로의 모든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래의 두편지는 브라리아가 수용소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네번째 편지:

사랑하는 마리아 자매님.

편지를 쓸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내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인데 여기의 생활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저희 상황에 대하여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며 내가 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어느 한 자매는 기계 작업반에 배치되었는데 일은 너무 힘들어요. 그 자매는 몸이 허약하여 나의 몫을 끝내고는 그를 도와주곤 합니다. 하루에 12~13시간의 로동을 하는데 비하여 먹는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 너무 적게 차려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리아 언니, 나는 이런 곤란한 형편에 못이겨 편지를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니예요. 나는 언니를 통하여 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나는 삶의 목적과 인생의 옳은 방향을 찾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고난당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내 가슴 속에 넘쳐흐르는 구원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만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 그 누가 감히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 굳세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내 마음 속에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

면 공산당들은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벌을 주고 더 많은 일을 시키지만 나는 나를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새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것입니다.

수용소로 오는 길에 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첫 순간에 나는 그들이 주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령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차가 어느 한 역에 멎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달려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날 우리는 늦은 밤에 도착하였습니다. 수용소의 지하실에서 우리는 옛 전우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하자 주변에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라는 대답이 울려나왔습니다. 첫날 밤부터 우리는 뜨거운 정이 흐르는 가운데 한 집안 식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죄로 끌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우리 가운데는 훌륭한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매일밤 고된 로동이 끝난 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머리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많은 찬송가들을 배웠으며 매일매일 주님은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에서 처음맞는 19살의 성탄절을 나는 여기 수용소에서 뜻깊게 보냈습니다. 나는 결코 이 날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 일할 때 몇명의 형제들은 몰래 빠져 주변의 강가에 나가 얼음을 깨고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나와 7명의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 만일 언니가 옆에 있었다면 나는 나의 모든 사랑으로 이전에 아프게 한 언니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안위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매사람에게 서로 다른 초소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업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여기에 우리 형제자매들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언니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문안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세요.

빅리아

다섯번째 편지:

사랑하는 마리아 언니,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회가 있어 몇 글자 적습니다. 나와 ○자매는 주님의 은혜로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는 곧 ○○에서 ○○○지역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보살펴준 언니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언니가 보내준 필수품 특히 성경책을 받고 보물을 찾은 것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오묘한 것이예요. 주님의 은혜 입은 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주님을 영접한 초기부터 그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마음 주

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어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지역에 간 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편지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 천국에 우리에게 줄 큰 상품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1,12절을 보기로 합시다.

되리아

이것은 공산주의자였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죄가 되어 수용소로 끌려간 되리아에게서 온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후 나는 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과 간증은 세계 1/3의 인구를 통치하는 공산당 철의 장막 뒤의 고난받고 굳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7 장

지하교회의 호소

사람들은 나를 “지하교회의 소리”라고 말하지만 내가 어찌 예수님의 한 지체인 지하교회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철의 장막 속에서 부분적인 지하교회의 사업을 맡아보았습니다. 나는 기적적으로 14년간의 감옥과 고문, 2년간의 감옥 림종실 생활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나를 감옥에서 구원해 내시고 서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로무니아의 지하교회는 봉쇄한 “병어리 교회”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로무니아 지하교회는 나를 서방 나라로 보내어 이 소식을 자유세계의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나는 철의 장막 속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며 전도사업을 벌이는 성도님들의 신신당부를 받고 로무니아를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수많은 무덤 속의 이름 없는 형제들을 위하여, 로무니아의 수림 속, 지하실, 옥상 등 곳곳에 숨어 집회를 가지는 형제 자매님들을 대표하여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전도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댓가는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의 장막 속의 성도님들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들립니까? 이는 결코 자기들이 안일한 생활을 누리고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젊은 세대들을 무신론의 독뿌리에서 구원해낼 성경입니다. 성경책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두 련차가 맞부딪쳐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이때 차에서 다행히 살아난 한 외과의사가 부상자들이 저마다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수술도구! 수술도구!” 만약 그 당시 수술도구가 있었다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져냈을 것입니다. 의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지만 도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지하교회들의 실지정황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릎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뒷받침없이 마음만 가지고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경과 복음 책자 등을 지원해 주십시오. 전도는 우리가 맡아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뜨거워지는 말들입니다.

원조 방법

여러분 매 사람들은 아래의 방법들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생명과 이 우주에 있는 자연을 초월하는 모든 것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들의 생활 원칙은 눈에 보이는 것 뿐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도 믿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우선 우리는 좋은 간증으로 무신론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는 공개적으로 항의를 들이대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래일 이들은 우리를 더욱 심하게 핍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도 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 이튿날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후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하루에 5천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인가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우리 이웃처럼 사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으며 너희들의 생명은 더욱 풍족할 것이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직 매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포악하고 잔인한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으로만은 공산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레를들면 깡패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감화시키는 한편 경찰,

감옥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만일 깡패들이 자기의 잘못을 잘 뉘우치지 않으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야 하는 것처럼 국제적인 깡패집단과 같은 공산당은 반드시 정치, 경제, 문화방면에서 일정한 제제를 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랑" 원칙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산당 국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악독한 통치체급이나 고난받고 있는 인민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롭게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을 다하여 성경책들을 지하교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급해 줄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사회주의 나라들에 들여보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로무니아에 있을 적에도 외국에서 보내온 성경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나는 많은 책들을 지하교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철의 장막 속의 수천만 기독교인들은 몇십년 동안이나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2명의 람루한 옷을 입은 농촌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온 겨울동안 도시에 나와 땅을 뒤져 벌은 돈으로 낡은 성경이라도 살 수 있을까 하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나에게는 미국에서 형제들이 보내온 성경책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새 것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책 값을 치르려고 했지만 나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자기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나는 30명의 기독교인들이 서명한

진심과 기쁨이 넘친 감사의 편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명의 성도가 가져간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뜯어 30개로 나누어 서로 교환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소련 성도들은 한 페이지의 성경지를 소유한 것을 보배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읽고 또 읽습니다(한권의 성경책이 아니라 한 페이지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들의 소나 염소 한마리로 성경책을 교환하며, 내가 잘 아는 한 형제는 자기의 결혼반지를 팔아 한권의 낡은 신약전서를 샀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는 일입니까? 어린이들은 성탄 축하장이 어떤 것인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한장의 축하장이 생기면 농촌의 어린이들은 다 모여들어 신기하게 만져보곤 합니다. 이때 마을의 나이있는 한 성도가 아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구원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한장의 성탄축하장도 얼마나 좋은 간증으로 될 수 있습니까!

셋째로 우리는 공산당의 무신론을 반대하는 책들을 대량 인쇄하여야 합니다. 지금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젊은 세대들이 무신론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무신론자들의 성경”과 같은 “무신론 수첩”이란 책을 출판하여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나이에 맞게 단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서부터 무신론의 사상으로 가득차게 준비시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아직 사람들을 무신론주의자로 만드는 이 책의 해독성과 죄악성을 폭로하는 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신론주의를 반대하는 책들을 여러

가지 언어로 한시 바빠 출판해낼 임무가 있습니다. 무신론 사상으로 중독된 젊은 새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하교회를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이 충분한 러비로 각지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은 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집에 묶인듯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20~30리 밖에서 비밀 집회가 있어 성도들이 요청하여도 차비가 없어 안타까와 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한달에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준다면 이들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전에 감옥에 갇혔던 어느 한 목사님도 가슴 뜨거운 간증으로 령혼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 소식을 전하려 하여도 경제적인 애로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도들의 로임은 겨우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도 복음전도 사업을 벌여 나가기에는 너무 모자라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이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다섯째로, 우리는 자유세계의 라지오 방송국을 통해 복음 방송을 사회주의 나라들에 들려주어 그들을 령적으로 먹이고 키워야 합니다. 지금 공산당 정부들이 단파로 라지오 방송을 하므로 거의 모든 가정들이 다 라지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라지오 방송을 통하여 복음전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도맡아 나서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수난당한 기독교인 가족들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성도들이 붙잡

혀가면 자신들이 고문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가족들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하곤 합니다. 공산당 정부는 기독교 가정들을 고의적으로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그 누구도 절대로 도와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수천만의 기독교인 가정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나의 가족 등도 이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만일 자유 세계의 성도들이 나의 가정을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며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등에서는 대규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학살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순교한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을 떠났어도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둔 불쌍한 가족들은 그칠 줄 모르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론 인도와 아프리카의 헐벗고 굶주린 인민들도 우리들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누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고난당한 기독교인들이 남긴 가족들보다 우리의 도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로무니아를 나온 후 구라파의 성도들은 이 방면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단결되어 기독교인 가족들을 구제한다면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는 구사일생으로 자유세계에 와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여러분에게 그들의 외침과 무언의 부르짖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는 한 부분들입니다. 철의 장막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할 때 우

리는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마음 속에 아무 감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정원에서 가슴 미여지는 듯한 아픔을 참으시고 기도하신 력사의 그 중요한 시각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멀지 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신들에게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물어보십시오. 철의 장막 속의 성도들은 초대 교회 시기의 기독교인들처럼 자립적으로 영웅적인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제일 장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안일하게 잠만 자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애타는 부르짖음과 구원의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非卖品

SH-07